

저소득, 빈민지역
아동을 위한 자연생태학교
사업보고서

2004. 1

지역공동체 날뫼터

1. 들어가며

1. 사업의 취지 및 필요성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서구지역 특히 비산동의 많은 아동, 청소년들은 기존의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는 소외되고 주목받지 못했다. 이러한 지역에서 10년동안 지역센터 운영해오면서 자신감 없고 소외되어 온 지역의 아동들을 많이 만났다. 저소득 지역의 아동, 청소년들은 소외의 극복을 사회일탈로 많이 본다. 열악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어린시절부터 정서적 결핍이나 학습의 부진이 누적되어 온 아동, 청소년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며,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시키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곳에 공부방이 존재하므로 아이들의 학습공간, 놀이공간, 쉼터로써 때로는 양질의 교육환경—프로젝터, 컴퓨터 등의 활용과 십자수, 종이 접기, 연극, 춤, 등 아이들이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수업—으로써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95년 이후로 꾸준히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식물가꾸기, 텃밭만들기, 알뜰시장, 사회과프로젝트수업(낙동강탐사, 지구가 아파요, 우리동네 알기), 들꽃 관찰 및 세밀화 그리기, 염색활동 등 다양한 활동과 방학을 이용한 우포늪 캠프, 농촌체험 캠프, 갯벌탐사, 숲·나무체험, 민속놀이, 우리문화체험활동 등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나열하고 보니 정말로 환경수업을 많이 했다는 자부심이 생긴다. 그리고 영덕과 합천에 회원들이 직접 귀농하여 유기농 공동체를 만들어 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봄이 와도 동네에서는 개나리, 목련꽃조차 볼 수 없는 빈민지역의 삭막한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고 환경을 생각하며, 작은 들꽃, 나무를 소중하게 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4년동안 급식활동을 해오면서 절대로 음식을 남기기 말아야 한다고 규칙을 정해서 정말로 잘 지켜왔는데 이는 사실 환경에 대한 생각에서보다는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선생님이 밥을 주지 않을까하는 빈민지역아이들의 절박성에서 오는 소극적인 행동이다. 화분을 가꾸어도 햇볕이 잘 안드는 공부방에서는 말라죽기 일쑤여서 늘 다른 집에 치료를 하러 보내야 하고, 사회과 프로젝트수업을 열심히 준비해서 해도 아이들의 산만함과 학습에 대한 무관심으로 아이들이 만들어 가야하는 프로젝트수업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간섭이 많이 생기는 게 사실이다.

체험활동은 그나마 멀리 바깥으로 나가니까 아이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활동이지만 갯벌보다는 서해의 바다에서 노는 것을 더 흥미로워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벤트성의 행사가 아닌 생활에서 꾸준히 보고 체험하며 생각을 바꾸고, 생활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게 된다. 최소한의 호기심이 있고, 감수성이 뛰어나며, 탐구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환경탐사나 교육이 아닌 빈민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좀 더 다른 방법의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늘 절감하게 된다.

우리 아이들의 장점은 무엇일까?

아이들이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다. 밥하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등의 일상은 누구 못지 않다. 체력이 엄청 좋다. 학원가는게 없으니 사실 공부방이 아니면 학교 다녀와

II. 추진일정표

1. 자연학교 추진 일정

일 정	주요내용	세부추진내용
4월-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 부서 및 인력 확정 ◆ 활동 모듬구성 ◆ 사전활동 7회 진행 ◆ 교사교육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자 및 자원교사로 구성 - 아이들의 나이, 활동역량에 따라 구성 - 달성공원, 오봉산, 금호강둔치, 신천 등지에 자연생태학교를 위한 사전활동 - 우포늪, 안심습지 탐사 - 환경도서구입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교육활동 ◆ 사전답사활동 및 사전 현지교육 ◆ 프로그램강사확정 ◆ 장소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학교와 관련한 주제별 연구 - 사전답사(옥계계곡, 팔각산, 동해 등) - 사전현지교육(2박3일) : 교사가 아이들이 해 볼 프로그램을 미리해보고 평가. - 현지 및 지역사회 강사들 섭외, 기획회의 마련 - 9박10일의 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장소사용과 안전에 대한 점검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박10일 자연생태학교(1-10일) ◆ 생태학교 평가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교사, 자원교사, 아동대표, 지역대표 등으로 운영위원회 구성 - 매일 마다 교사평가 - 아동 및 교사진 평가서 작성
9월-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성천환경관리사업소, 한국자원공사방문 - 우리동네의 자연생태를 알 수 있도록 들꽃, 나무 생태지도 그리기 - 서구지역의 자연생태그리기 - 우포늪, 겨울철새탐조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박8일 자연생태학교(5-11일) ◆ 사업 평가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겨울생태학교평가 - 자료집 만들기

2. 사전, 사후활동

월	교육내용	장소/강사
4	◎ 자연생태학교 안내 - 모듬 조직 - 연간 활동 안내 및 유의점 안내 ◎ 봄나들이 - 봄나물캐기(쑥, 냉이 등) - 봄 들꽃 자세히그리기 및 관찰	봉무공원 조명순
5	◎ 나무와 친해지기 - 오봉산에 있는 나무의 특성과 이름 배우기 - 나무 탁본 - 내나무 정하기, 이름달아주기 ◎ 나무퀴즈 - 나무도감 참고 - 나무의 특징배우기	달성공원 서보경
6	◎ 지구의 날 행사 참가 - 환경보호활동 배우기 ◎ 신천 따라 걷기 - 강의 생태관찰 - 강의 흐름 이해	신천 둔치 백경록
7	◎ 안심습지 탐사 - 도시내 습지의 기능 알기 - 습지 동,식물 관찰 ◎ 우포늪 탐사 - 우포늪 사계 비디오 보기 - 철새탐조	안심습지 (박희천) 우포늪 (푸른우포사람들)
8	◎ 수목원 - 수목원조성 배경(쓰레기 매립장위에 조성) - 나무의 특성(약용식물, 습지식물...) - 숲 따라 걷기	수목원 (조명순)
9	◎ 우리동네 들꽃, 나무 지도 그리기 - 먼저 동네를 여러번 둘러본다. - 동네에 있는 나무 관찰 - 도감을 이용하여 식물 이름 알기	동네
10	◎ 가을 숲, 들꽃 관찰 - 금호강, 오봉산 일대	오봉산
11	◎ 달서천환경사업관리소 견학 - 하수종말처리 과정 알기 ◎ 한국자원재생공사 견학 - 재활용에 관한 공부	담당자
12	◎ 우포늪, 겨울철새탐조	우포늪

3. 담당인력

① 실무교사 및 자원교사

이름	부서 및 직위	경 력	담당역할	
			여름	겨울
남은경	대표	사회복지사, YMCA환경지도자교육이수	사업총괄 우수수모듬	식사담당, 생태지도그리기
유창열	연대사업부 부장	대구귀농학교 운영위원, 전통건축학교운영위원	시설관리 캠프전반	시설관리 연만들기
서보경	아동부 부장	대구대 화학교육과 졸업, 생태캠프강사	그림(저학년남 학생)모듬	모듬장모임 염색활동
조명순	여성부 부장	공부방 자모회 대표	땅비사리(고학 년남학생)모듬	중학년모듬 들꽃,나무관찰
조월숙	부모회회원		저학년(우수수) 모듬	조각보만들기 저학년모듬
김향진 안수진	자원교사회	대구교대 학생	생활교사보조	

② 전문강사 및 기관 : 활동의 취지와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기관 및 강사를 섭외하고 현지의 교사 및 단체와도 섭외한다.

이름	경 력	담당프로그램
김은경	영덕예술촌 도자기 강사	도예체험활동
박학진	경남합천풍물패장	풍물교사
김현미	의성환경교사모임	들꽃, 수중생물탐사
성화륜	명상센터 운영, 귀농자	명상체조, 기체조 등 유기농사체험활동,나무알기
한승협	영덕예술촌 동양화 강사	동양화
김학진	전통생활문화마당 지킴이 운영	풍물, 장승·숫대만들기, 염색활동
임성무	대구환경교사모임대표	별보기, 생태탐사
송호민	영덕 생명자치 연대	유기농사체험활동
백승해	신라문화유산회 운영위원	들꽃강사
박희천	경북대생물학과 교수	안심습지 생태교육강사
	푸른우포사람들 사무국장	우포늪생태교육강사

4. 여름 자연학교 일정표

	8월1일(금)	8월2일(토)	8월3일(일)	8월4일(월)	8월5일(화)
6:00-7:00		씻기, 아침운동			
7:00-8:00		명상 / 세밀화그리기 / 밥준비			
8:00-9:00	출발	아침식사			
9:00-10:00		책읽기			
11:00-1:00	이동	전통 문화 체험 활동 (풍물, 동양화, 도자기, 천연염색)			
1:00-2:00	점심식사				
	자연에서 배운다.				
2:00-6:00	밭대식/청소 /김치담그기	옥계계곡 따라걷기	들꽃배우기	떡만들기	곤충, 불고기 를 찾으러
6:00-7:30	저녁식사				
7:30-9:00	바느질 하기 이불만들기, 베개만들기				
9:00-10:00	별관찰 / 일기쓰기/ 씻기				
10:00-11:00	교사 평가회				

	8월6일(수)	8월7일(목)	8월8일(금)	8월9일(토)	8월10일(일)
6:00-7:00	씻기, 아침운동				
7:00-8:00	농사일 / 장승만들기				
8:00-9:00	아침식사				
9:00-10:00		책읽기			
11:00-1:00	떡만들기	전통 문화 체험 활동 (풍물, 동양화, 도자기, 천연염색)			평가의 시간
1:00-2:00	점심식사				
	자연에서 배운다.				
2:00-6:00	옥계계곡 트레킹	나무체험	숲 체험	바다탐사	집으로
6:00-7:30	저녁식사				
7:30-9:00	전체회의 (중간평가)	담력키우기 활동	인간관계훈련	환경축제	
9:00-10:00	밤산책, 별관찰 / 일기쓰기/ 씻기				
10:00-11:00	교사 평가회				

5. 겨울 일정표

2004년1월5일 월요일 - 영덕으로 출발!!	시간	6(화) ~ 11(일)	
영덕으로 무사히 왔군요..^^*	7시	일어나기/이불개기/운동	
	7시30분	명상/만다라	
		식사준비모듬-명상/아침준비	
9시	아침먹기		
■어려운 짐은 없었나요? ■오는 길에 배는 고프지 않았나요?	10시	오전활동	*들꽃,나무보기➡조명순 *염색하기➡서보경 *연만들기➡유창렬 *조각보만들기(염색 활동후)➡조월숙 *들꽃,나무지도그리기(들꽃,나무보기 활동후)➡남은경
■모듬끼리 말다툼은 없었나요?	1시	간식/자유시간	
■영덕까지의 여행길을 자세히 적어주세요.	1시30분	오후활동 (감자와함께)	*나무해오기/볼놀이/퀴볼놀이/고구마구워먹기 ➡유창렬,서보경 *숲에가기(1회가능)➡조명순 *떡만들기(1회가능)➡조월숙
	4시	씻기/정리	
		식사준비모듬-정리/저녁준비	
	5시	저녁먹기	
겨울캠프 일정입니다. 모듬별로 정해주세요	6시	학년활동	*고학년-모듬장회의, 책읽고 이야기➡서보경 *중학년-책 읽고, 이야기나누기➡조명순 *저학년-놀이(공기,실뜨기,종이접기,고누) -그림일기,책읽기,잘준비➡조월숙
	8시	일기쓰기/잘준비	
	9시	잠자기	

6. 여름 자연학교 식단

요일	1일(금)	2일(토)	3일(일)	4일(월)	5일(화)	6일(수)	7일(목)	8일(금)	9일(토)	10일(일)
생김	잎줄기와 열매식물	뿌리와 줄기식물	뿌리와 잎줄기식 물	전통음식 과 열매식물	바다식물 과 땅동물	가공식품 과 기생식물	바다동물과 잎줄기식물	잎줄기와 열매	가공식품 과 열매식물	땅동물 과 잎식물
고르 기										

☺곡식 - 벼(현미, 백미, 흑미), 수수, 기장, 보리, 콩(약콩, 서리태, 완두)

☺뿌리식물 - 감자, 고구마, 양파, 무, 당근, 마늘, 우엉, 연근

☺줄기식물 - 고구마줄기, 토란줄기

☺열매식물 - 오이, 고추, 가지, 호박, 대추, 복숭아, 수박, 옥수수, 사과

☺잎식물 - 깻잎, 호박잎

☺잎줄기식물 - 미나리, 배추, 부추, 상추, 양배추, 썩갓, 시금치, 파,
얼갈이

☺기생식물 - 버섯

☺바다식물 - 김, 다시마, 미역

☺땅 동물 - 소, 돼지, 닭(계란)

☺바다동물 - 오징어, 고등어, 명태(동태, 북어), 멸치

☺가공식품 - 오뎅, 맛살, 참치, 두부, 밀가루(라면, 국수), 당면

☺전통음식 - 떡, 만두

☺? - 콩나물

7. 겨울식단표

	5(월)	6(화)	7(수)	8(목)	9(금)	10(토)	11(일)
아침	밀 반찬 은 개인이 가지씩 고오기	콩나물국 한 오뎅맛살볶음 들 밀반찬 (유리바다)	계란국 시금치 밀반찬 (나이팅게일)	콩나물국 오뎅볶음 밀반찬 (별사랑)	미역국 계란후라이 밀반찬 (유리바다)	계란후라이 만둣국 밀반찬 (나이팅게일)	오뎅국 시금치무침 밀반찬 (별사랑)
간식	모듬끼리	팬케익 (별사랑)	비빔밥 김 (유리바다)	감자나 계란 삶은 것 (나이팅게일)	군고구마 (별사랑)	고구마전 (유리바다)	비빔밥 (나이팅게일)
저녁	김치덮밥 (유리바다)	계란말이 김 김치찌개 밀반찬 (나이팅게일)	김치덮밥 밀반찬 (별사랑)	된장찌개 시금치 무침 밀반찬 (유리바다)	떡국 잡채 팽이버섯볶음 밀반찬 (나이팅게일)	비빔밥 (콩나물, 시금치 무채무침) 된장국 (별사랑)	

- 선생님의 도움없이 모듬원이 만들 수 있는 식단을 짰 것입니다. 중복되는 식단이 있어도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단 요리를 만들 때 아이들의 식습관 훈련과 영양적인 면을 고려하여 다양한 재료를 첨가하였습니다.

Ⅲ. 활동내용

1. 일상활동

1) 아이들이 머문 집과 마을 이야기

○동네

아이들이 여름과 겨울, 자연생태학교를 경험한 곳은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대지리라는 동네이다. 경북에서도 손꼽히는 작은 규모의 면인데, 마을과 들녘 앞으로는 맑은 시냇물이 넓게 옥계계곡으로부터 흐르며, 가까이에 태백에서 뺀 내연산의 자락인 팔각산과 그리고 주왕산도 있다. 또한 맑고 푸른 동해바다가 차로 20분 거리에 있어 폭넓은 생태체험이 가능한 곳이다. 이곳은 아직까지 개발의 폐해로부터 좀 거리가 먼 전형적인 농업 위주의 시골마을이라, 사람의 인심이 아주 따뜻하다.

즉 이러한 환경 조건은 대규모의 집단 이농 이후, —케이블 TV의 수많은 일본만화와 컴퓨터의 폭력 게임에 방치되고, 탑 블레이드나 갖고 노는 콘크리트 도시에서— 전통적이고 창작적인 놀이문화와 생활문화를 잃어버린 아이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스스로 복원하고 기억하게 만들어 주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준다.

박나린 - 영덕

영덕동네에는 꽃이 많다.

공기가 너무 좋다.

동네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많이 봤다.

학교도 있어서 운동장에서 긴줄넘기를 했다.

또 강에서 고구마를 먹었다.

밤에는 별이 잘 보였다.

김나경 - 영덕 동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영덕 동네의 할아버지·할머니가 생각한다. 우리 동네는 주민들이 많아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를 할 때 쑥스러웠는데 영덕동네에는 할머니·할아버지들이 적으셔서 인사할 때 쑥스럽지 않았다. 다음에 또 가서 할아버지·할머니께 또 인사를 드리고 싶다!!!

그리고 여름 때 들꽃들이 싱싱하고 잎이 파랭는데 겨울이 되니까 시들시들하고 잎이 노랗게 된다. 빨리 봄이 와서 다시 잎이 파래 곱으면 좋겠다.

하현동 8월 1일 금요일

오늘은 영덕 옥계 계곡으로 야영을 왔다.

처음으로 우리가족을 떠나 혼자서 여행을 떠나 왔다. 누구집인지도 모르고 선생님을 따라 나의 짐을 내려놓고 방청소를 했다. 그리고 저녁에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데로 반찬도 만들고 밥도 짓고 친구들이랑 모여 맛있게 밥을 먹었다.

백주화 8월 1일 금요일

오늘부터 공부방에서 캠프를 하였다. 10시 30분쯤에 버스를 타고 영덕에 왔다. 우리가 9박10일을 지낼 곳은 영덕 달산이다.

우리는 김치를 담그고 청소하고 밥먹고, 물놀이를 갔다. 물이 정말 맑았다. 물어보았더니 1급수물이었다. 그런데 물이 얇아서 아쉬웠다. 그래도 즐겁게 놀았다. 시원하기도 하였다.

○집

아이들이 지낸 집은 나무와 흙으로 지은 4칸의 전통한옥 두 채이다. 아랫채는 빈집이 된 지 오래로 전기와 물이 끊어진 곳이라,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긴 전선을 이용하여 전기를 끌어왔다. 남학생 모둠과 교사 일부가 이곳에서 지냈는데 아이들의 글에서 나오듯이 이곳에 박쥐집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많은 놀라움과 즐거움을 주기도 했다.

아이들이 주로 지냈던 윗채는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이 이루어진 곳으로, 마당에는 대형텐트를 쳐서 아이들이 밥을 먹거나 일기를 쓰거나 휴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현동 - 박쥐사건

여름캠프를 가서 며칠이 지났다. 밤에 잘 때 위에 머가 날아다녔다. 우리는 나비인지 알고 나가겠지라고 했다. 그런데 보니까 박쥐였다. 우리는 박쥐이야기를 하면서 놀기도 하고 무서워 하기도 했다.

박나린

박쥐는 아침에도 봤다.
박쥐는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밤에는 집에 들어갔다.
박쥐는 아침에 없어졌다.



○화장실

이전에 대구귀농학교를 함께 운영했던 날피터의 회원이 지은 것으로 '생태적 뒷간'이라는 개념에 맞게 설계했다. 우주의 모든 생명은 먼저 잘 먹고 잘 싸야, 건강해지고 육체와 정신의 노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모든 생명은 서로에게 공양밥이 되고, 다시 순환한다. 토착세계인 농촌 마을과 집에서는 거의 하나도 아무런 구실 없이 버려지는 게 없으며 그래서 안되는 것을 아이들은 체험한다.

서명구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구멍에 빠질거 같았는데 구멍에 안 빠진다. 그리고 다누고 나니까

왕겨를 부었다. 하나도 안무서웠다.

문용환

처음에 와서 화장실에 가보니까 무서웠지만 누다가 보니까, 안무서웠다. 그리고 그 집은 좋았다. 옛날 화장실이라 무엇이 물을 것 같아 좀 짹짹했다.

2) 밥은 이렇게 먹었습니다.

생태학교에서 제일로 중요한 게 먹는거다. 대부분의 캠프가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진행하지만 아이들이 내어놓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엄청나다. 또한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과 노력이 소모된다. 우리는 9박 10일 동안 지내기도 해야 하지만 아이들이 그저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다양한 생태적 활동을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어렵지만 아이들이 직접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모듬별로 밥시간대를 정하였다. 저학년모듬인 고소한 그림이 아침식사를, 점심은 유아모듬인 고구마가 준비하고, 저녁식사는 고학년모듬인 옥수수과 땅비싸리모듬이 나누어서 맡았다. 아이들은 미리 잡곡을 물에 담구어서 불리고, 식단은 미리 교사가 준비해둔 내용(뿌리채소, 잎줄기채소, 열매채소...)에 따라서 아이들이 각자가 요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첫날에 아이들이 직접 담근 김치를 기본 반찬으로 해서 국과 반찬 한 가지를 아이들이 준비했다. 어떤 날은 양배추쌈, 오이 무침만으로도 밥을 먹은 날도 있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야채를 참 싫어한다. 하지만 한두가지의 야채반찬뿐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직접 만든 음식을 싫다할 아이들은 없었다. 오이의 상큼함과 양배추의 달짝한 단맛을 아이들이 처음으로 느꼈다고 한다.

밥을 먹을 때는 모듬별로 먹었는데 밥 나누기가 끝나면 모두들 밥그릇을 손에 들고 오관계를 하였다. 절에서 발우공양을 할 때 먹기 전에 하는 기도문이다. 인스턴트음식에 길들여지고 제대로 된 식사예절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기 전에 이 음식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쓰일까를 잠깐이나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래도 먹성이 좋은 아이들이지만 자기가 직접 만들고 또 오관계를 통해서 자세를 가다듬어서 인지 음식을 남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너무 밥의 양이 많은 때는 옆의 친구나 교사가 조금씩 거들어서 버려지는 음식물은 거의 없었다.

설거지는 각자가 하였다. 발우공양에서처럼 물로 깨끗이 씻어먹는 아이들도 몇이 있었다. 큰 그릇들은 교사들이나 담당모듬이 뒷정리를 하니까 씻는데 들이는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되었다.

9박 10일간의 여름캠프로 식사준비와 밥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지고,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한번씩 있는 공부방잔치에서 요리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준비하는

활동으로 끝나지 않았다. 겨울캠프의 모든 식단을 아이들이 직접 짜고, 필요한 재료를 정했고 캠프기간중의 모든 식사를—식사준비와 함께 먹는 방법까지도 아이들이 손수 하도록 교사들의 도움을 최소한으로 하려는 노력도—아이들이 준비를 했다는 사실이다. 아이들이 가지는 자신감과 내 입으로 들어가는 밥 한 숟가락, 국 한 숟가락이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지 생각하고 그려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저학년모듬인 고소한 그렁은 아침준비를 위해 전날 자기전에 잠곡을 물에 불려놓아야 했다. 그 작은 손으로 각자의 잠곡들을 그릇에 담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계속 떨어지고 흘리는 여러 곡식들을 한톨 한톨 줍는 모습이 생각난다. 상상해보시라. 잠깐의 한눈으로 그릇이라도 엮지른다면.... 콩은 그나마 낫다. 기장이나 수수, 흑미였다면...

한혜리 - 밥먹을 때에...

캠프에서는 밥 먹을 때 현미와 울무, 수수, 보리, 여러 가지 콩 등을 많이 썼다. 그리고 우리가 별사랑, 나이팅게일, 유러바다 이렇게 세 팀이 정해진 날짜에 따라 음식을 준비를 맛있게 해서 먹기전에 오관계를 "꼭"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고, 내 덕행으로 받기 부끄럽네, 마음에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약을 받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며 밥을 맛있게 먹었다. 난 그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슬~슬 생기게 되었다.

하현동 1월 6일 화요일

놀다가 저녁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계란말이를 하고 김치찌개를 하였다. 밥을 지을 때는 쉬웠지만 김치찌개랑 계란말이를 할때가 힘이 들었다. 그래도 재미있었다. 밥을 먹고 양치질을 하고 일기를 썼다.

서명구 1월 6일 화요일

오늘은 염색을 했다. 염색을 하니까 색이 참 예쁘다.
요리를 했다. 계란말이, 김, 김치찌개. 가 참 맛이 있었다. 계란말이가 참 맛있다.
요리할 때 기분은 참 좋았다.

김나경

1월 6일 화요일 덜덜덜 춥다 --장금이가 된 의주

오늘은 의주가 장금이가 되었다.

어떻게 장금이가 되었냐면 선생님이 밥을 너무 잘 한다고 장금이 같다고 장금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원래는 서장금인데 의주의 성이 여씨라서 여장금이 되었다. 의주가 집에가면 밥한다고 바쁠 것 같다.

의주야, 만약에 밥하면 파이팅!!!!

김송 - 설거지

설거지를 했다. 설거지 물이 퐁퐁 내려니깐 물가에 가고 싶다. 그리고 설거지를 하니깐 많은 걸 알았다. 머냐하면 물과 자연이 석일수 있다. 청소는 좋다.



3) 염색하여 이불, 베개, 조각보 만들기

여름 자연학교에서 아이들이 덮을 이불과 베개는 아이들과 황토염색을 한 광목천으로 만들었다. 이불은 아이들이 덮기에 적당한 크기로 잘라 황토에 염색을 하고 말리면 끝이지만, 베개는 아이들이 한땀 한땀 바느질을 하고 속에는 왕겨를 넣어 밖으로 빠져 나오지 않도록 마무리를 하였다. 이틀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바느질이 너무 듬성하여 바느질을 다시 하기도 하고, 또 너무 좁게 남겨두어서 왕겨를 넣을 때 힘이 들기도 하고, 봉숭아, 달개비, 풀잎으로 예쁘게 꾸미려고 공을 들여서 베개를 완성하는데 한참이 걸렸다.

제 것을 잘못 챙기는 아이들도 베개만큼은 꼭 챙겨서 밤에 잘 때 베고 잤다. 겨울에 갈 때도 모두들 제 베개를 가져와서는 밤에 잘 때 꼭 베고 잔다. 잘하든 못하든지 제가 만든 물건이라 너무나 소중한가보다.

겨울에는 황백, 치자, 썩 등 여러 가지를 염색한 천을 모아서 조각보를 만들었다. 썩을 구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동네에 다니면서 말린 썩을 뜯어오기도 했다. 가방, 다도할 때 쓰는 차받침, 조각보 이불 등 다양한 작품들이 나왔다. 아주 작고 쓸모없는 천 조각들이지만 예쁘게 염색하고, 작은 것 들을 모아서 예쁘게 조각보를 만들어 가방도 만들고 이불도 만들면서 아이들은 무엇 하나 버릴게 없다는 것을 배운다.

불과 50년전만 해도 길쌈을 해서 천을 만들고 손으로 만들어 입었는데 지금은 모든 걸 돈을 주면 사게 되니까 너무 쉽게 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한다. 빈곤지역 아이들은 정말로 손으로 무엇을 하는데 있어 둔한 아이들이 많다. 젓가락질도 힘들고, 가위질도 힘들어한다.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손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제대로 봐주지 않아서다.

우리 공부방의 가장 주요한 교육원칙 중의 하나가 사람은 일찍부터 자신의 손을 써서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데 있다.

일찍이 위대한 사상가들(특히 간디, 하이데거, 슈타이너, 이반 일리치 등)은 교육과정 속에서 수작업을 매우 중시했다. 손을 많이 쓰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따위의 반교육적인 —인간을 도구적으로 보는 관점임— 이유가 아니라, 이를 통해 건전한 직업을 가

진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실용적 측면과 공동사회에 기여하는 자신을 아끼고 생각이 깊어지는 창조인이 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삶의 기술에 대한 접근을 통해 대량생산·대량소비 체제의 종속을 넘어 생태적 태도를 갖는 인간으로 자각할 시점이 당겨지는 것이다.

한해리 1월 8일 목요일 맑음-흐림 --염색하기

오전활동에 염색하기를 했다. 우리모듬은 주화언니, 나린이, 용환이 였다. 당연히 나는 들어가겠지? 하하 호호!

오늘 염색하는데... 썩, 치자, 황백의 세가지 재료였다. 색깔로 말하자면 진노랑색, 연노랑색, 진한 살색등으로 물을 들였다! 나는 치자, 황백, 썩 이렇게 순서대로 염색을 했다. 할 때 참 재밌었다. 주물럭 거리 때, 또 말려서 빨래 걸개로 걸으니 참 이뻐다!

조성환 1월 9일 금요일 --염색했던 날

염색의 했다.

조금 큰 걸로 했다. 그기에다가 나는 여러 가지색으로 골고루 했다. 그리고 완성했다. 참참 많이 좋았다.

김나경
오늘은
공부방에서
형겉으로
만드는 날

가슴이
콩닥콩닥
두근두근

뭘 만들까?
쿠션, 베개, 인형?

뭘 만들지
궁금했는데

오늘은
가방을
만드네

예쁘게
천연 염색한
천으로
예쁜 가방
만들어야지!

오늘은
조금밖에
못했지만

다음에는
꼭
완성해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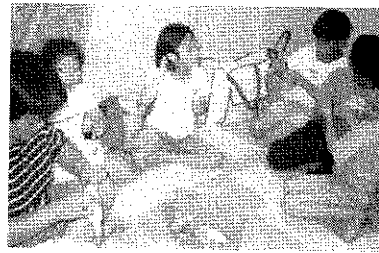


여의주 - 형겔수업

오늘 형겔(천)수업이 처음인데 처음에 가방을 만들기를 했다. 그리고 가방설계도를 그리고 정했는데 모양은 길게 해서 가방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다하고 천도 잘라보았다. -o-

조성환 - 조각보만들기

조각보를 만드려고 염색을 했다. 색깔은 치자와 황백이랑 섞이랑 했다. 그리고 말리고 바느질을 한다. 할 때 어려운지 알았는데 배우니까 정말정말 쉬었다.



4) 씻기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려면 제대로 씻는 것이 제일로 중요하다. 감기의 예방도 손발을 깨끗이 씻고, 양치를 잘 하는 것이다. 여름철에는 날마다 맑은 물에서 물놀이를 하기 때문에 물놀이를 끝내고 아이들의 옷을 빨거나 머리를 감거나 세수를 하게 했다. 겨울철에는 저녁을 먹기 전에 바깥활동을 끝내고 손발을 깨끗이 씻고, 물놀이를 하거나 운동장 먼지에서 실컷 놀았던 날에는 머리를 감고, 죽염으로 입을 꼭 헹구게 하였다.

소금으로 양치를 처음 하는 아이들도 많았다. 소금을 대나무통에서 아홉 번 구웠다가 하여 죽염이라 하는데 우리는 두 번만 구운 이죽염을 주로 사용하였다. 자연적인 모든 활동은 어른들보다 어린이들이 더 잘 하는 걸 죽염양치에서도 느꼈다. 어른들은 짹다, 짹다 등 여러 가지 핑계로 기존의 치약을 이용하지만 아이들은 익숙하지는 않지만 죽염으로 양치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별다른 불평없이 잘 한다. 모든 생태적 심성이나 생활방식은 어릴 때부터 익히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일이다.

김송 - 소금양치

캠ป์에서 거기서 2일 빼고 다 소금으로 했다. 소금으로 하면 이가 튼튼해진다고 했다. 기분은 좀 짹았다. 그래도 치약보단 좋았다. 외냐하면 이가 튼튼해진다. 기분이 좋았다.

2. 마음과 몸을 다스리는 활동

1) 마음 다스리기

생태학교의 하루의 시작은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으로 시작을 하였다. 좀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명상이 쉽지는 않았다. 매일 10-20분씩 조용한 명상음악을 들으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거나 벽에 그려진 점을 응시하고 있는 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10일 동안 매일 반복되는 명상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의 호흡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명상을 끝내고 자기 꽃이나 나무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매일 보는 내 꽃에게 어떤 얘기를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던 아이들도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부모님께 보낼 그림엽서를 쓰기도 하였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연과 얘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의 심성이 커지고 있었다.

여름캠프 6일째 되는날부터 아이들이 다음날의 활동을 계획하였을 때 아이들이 명상 활동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지루하고 힘들다는 말도 하지만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아이들 자신들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느꼈다.

겨울에는 명상을 하고서 만다라를 그렸다. 티베트의 만다라 불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종교적으로나 영성적인 활동에서 많이 이용된다. 어느날은 음악을 들으며 떠오르는 장면이라며 만다라를 그리는 아이도 있었고, 자기의 심정을 그림으로 그리는 아이들 또는 아무 생각없이 손이 움직이는데로 그린다는 아이들도 있었다. 장난스럽게 그려진 만다라이더라도 그 속에는 아이들의 감정과 생각과 현재를 알 수 있는 열쇠가 들어있다.

나의단짝 친구 봉선화

나의단짝 친구 봉선화

봉선화는 항상 기저귀를
차고 있지요!

나의 단짝 친구 봉선화

봉선화는 노랗고, 자그마한
풍을 싸지요!

나의단짝 친구 봉선화

애기처럼 매일 음크리고
있지요!

안녕, 내 꽃 다알리아! 나 지금 너를
위해 시를 쓸꺼야. 잠시 기다려봐!!!

내 꽃 다알리아

내 꽃

다알리아

어젠

봉오리더니

오늘은

활짝

피어났네

아주

아름답게

피어났네.

내 꽃 옥수수

안녕? 난 대나무라고 해 우리 친하게 지내자. (8월2일)

.....

옥수수야 잘 지냈니? 하루하루 너를 그려 보니 참 좋아.

앞으로 잘 지내자! (8월6일)

김나경 - 만다라

이번 겨울방학때는 여름캠프때 하지 못했던 만다라를 했다. 여름에는 그냥 명상하고 끝냈는데... 처음엔 그런대로 재미있었는데 날이 갈수록 힘들었다. 다음엔 좀더 흥미를 가지고 해보아야겠다.

2) 몸 다스리기

밤늦게 까지 TV를 보고 아침 늦게 일어나는 도시의 아이들이 여름에는 새벽 6시, 겨울에는 7시 30분에 일어났다면 참 믿기 어려울거다. 하루종일 다양한 활동을 해서 녹초가 되고, 한밤에는 더위와 모기로 한바탕 씨름을 한 아이들은 그래도 아침이면 종달새가 되어 종알종알 교사들을 깨운다. 몸 다스리는 활동으로 동네 한바퀴를 돌기도 하고, 걸어서 5분이면 가는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장돌기, 체조하기, 긴줄넘기 등 다양한 운동을 하였다.

여의주- 아침운동

우리 공부방 아이들은 캠프 때 아침마다 운동을 한다. 아침 7시 아니면 8시 아니면 7시 30에 일어나서 영덕예술촌 운동장 2바퀴 아니면 5바퀴를 돈다. 그리고 운동이 끝나면 언제나 놀기가 기다리고 있고, 어쩔 때 아침운동은 체조도 한다. 그리고 달리기할 때는 힘들때도 있지만 조금은 재미있었다. 그리고 어쩔때는 비석치기, 긴줄넘기를 했는데, 필때 정말 재미있었다. 아침운동은 즐겁다.

한혜리 - 아침운동을 할 때에.....

우리 공부방 아이들은 아침 8시가 되기전에 일어나서 영덕학교 운동장 2바퀴 이상을 돌 때에는 맑은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어쩔때 다리가 아플때도 있었다 그리고 한때 아침운동을 긴줄넘기로 했다. 우리들은 긴줄넘기를 하려고하면 일단 줄을선다 그다음에 1번 할때에 4명씩 뛰기로했다 여자 고학년 언니들은 한번뛰면 거의 죽을줄 몰랐다 근데 저학년아이들은 잘 못 뛰었다 그이유는 아직 어려서 그런가보다. "아, 재미있다"

3) 벌레들과 친해지기

여름에 가장 힘들었던게 벌레들과의 만남과 고투였다. 방충망으로 쳐져있는 도시 생활에 익숙한 아이들은 시골의 독한 모기를 아주 힘들어했다. 모기장을 치고 주변

에 가방을 둘러서 모기로부터 보호를 하려 했지만 몸부림이 심한 아이들은 자고 일어나면 팔과 다리에 엄청난 모기의 폭격을 맞기도 했었다. 우리끼리 전날의 상처를 보며 벌레에게 보시했다며 부어오른 간지러움을 웃음으로 대신하곤 했다.

사실 이건 맞는 말이다. 모기들도 먹고 사는 것이니까. 중요한 건 아이들이 웃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화장실, 마루 곳곳에 말벌집이 있어서 항상 벌들에게 신경을 써야 했고, 동네 곳곳에도 말벌집이 있었다. 말벌이 무언가를 몰랐던 아이들은 말벌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모기에게 물렸나하면 말벌에게 쏘여서 퉁퉁 붓고, 아프고 쓰러오기도 했다. 그래도 아이들이 참 잘 견뎌 주었다.

모기와 파리, 말벌, 그리고 다양한 벌레들을 막기 위해 모기향도 피우고 모기약도 뿌리지만 그렇다고 끝도 없이 밀려오는 벌레들을 다 막을 수는 없었다. 한편으로 아이들과 벌레들과 친해지는 방법들을 의논했다. 이것은 낯선 것을 대할 때 시간을 갖고 이웃한 존재로 인정해가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보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과정을 몸으로 마음으로 함께 느낄 수 있음은 누구보다도 아이들이 가진 능력—어른들이나 문명을 자처하는 것은 매우 불관용적이기에—이라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3. 자연활동

자연활동은 크게 자연생태학교에서 체험한 체험활동과 사전, 사후활동에서 진행한 견학활동으로 나뉘어진다.

1) 체험활동

(1) 들꽃, 나무, 숲, 산, 생태지도그리기

도시에서만 자라난 아이들에게 들꽃과 나무를 많이 보여주고 많이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게 했다. 각자의 별칭과 모듬이름을 나무, 꽃, 동물 이름으로 지었는데 다알리아, 옥수수, 개구리, 봉선화, 그렁, 땅비사리, 여뀌, 달개비, 달맞이, 강아지풀, 잠자리, 감나무, 대나무, 고구마..... 아이들은 자기와 참 닮은 이름들을 지었다.



아무리 작은 들풀이라도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다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 생긴 모습을 자세히 보기도 하고, 손으로 만져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맛도 보면서 다 알아보이던 풀들이 하나도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참을 걸어서 힘들었던 것도 금새 잊고 아이들은 들꽃 퀴즈를 풀면서 자기가 안다는 것에 기뻐했고, 들꽃과 풀들을 떠올리면서 우린 벌써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감탄에 빠지기도 했다.

영덕동네에서 볼 수 있는 여러꽃·나무들을 자기의 꽃으로 정하고는 매일인사를

하고 자세히 그리기를 통해 작은 부분까지 관찰함으로 느껴지는 아이들의 변화의 모습은 교사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어른이 된 지금, 그나마 우리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 정도의 감수성이라도 가진 것을 기뻐할 수밖에...

이 세상 이라는 곳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것은 사람이라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연의 품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많은 것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이다. 여름에 숲에 갔을때 내 친구 나무가 있었다. 겨울에 다시 나무친구를 보러 갔을 때는 혹시나 못 찾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모두 자기의 나무를 찾아서 안고, 보고, 이야기한다고 겨울숲의 활동은 하지 못했다. 그대신 교사들은 겨울숲의 정취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었다. 사실 겨울숲의 정취보다 내나무친구와 함께 하고 있는 아이들의 조용하고 따뜻한 모습을 보는게 더 좋았다.

들꽃 보기

백주화 1월 6일 화요일 --들꽃을 보러가자~!

오늘은 캠프 2틀째이당~

오늘은 들꽃을 보러갔다. 선생님은 우리 엄마다. 들꽃들이 눈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특징을 찾아보는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식물의 눈꽃을 보았다 그중에서도 목련과 칠엽수가 가장 생각이난다. 목련은 털이 나서 예쁘고 칠엽수는 크고 진액이 흘러내려 기억에 남았다.

김나경 1월 8일 목요일 어제보다 따뜻 --들꽃·나무보기

오늘의 오전 수업은 들꽃·나무보기 였다.

오늘은 나무의 눈에 대해 배웠다. 털로 쌓인 눈은 목련, 벽오동이 있고 비늘로 쌓인 눈은 감나무, 산수유 등이 있고 끈끈한 액으로 쌓인 눈은 칠엽수가 있다. 그리고 겨울 동안 풀들은 봄에 날 새싹을 준비하고 있고, 그렁 같은 풀들은 시들어 죽었다. 다음부터 식물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조성환 1월 7일 수요일 --나무조사했던 날

나는 우리모듬가 동화생이랑 나무 조사해오기를 했다.

그래서 벽오동나무도 새로 배웠다. 정말 좋았다. 그리고 집에 와서 고구마 삶아 먹었다. 참 맛있었다.

한헤리 - 숲에가기

여름 때 옥계계곡에 갔을 때 철사다리를 건널 때에는 별로 압무섭고 재밌었는데, 겨울에 철사다리를 탔을 때에는 너무~ 무섭진 않았지만 조금 무서웠다!

그리고 자기 나무를 찾아서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여름엔 내 나무 피부는 아주~ 좋았는데... 겨울에 보니 피부가 여름때보다 많이 얇아졌다! 나는 내 나무의 이름을 "한꽃"이라고 지었다. 한꽃이와 대화를 했는데 한꽃이가 내가 지어준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내마음이 너무 대견하다.

(2) 강, 계곡(트레킹), 바다

물놀이는 아이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놀이다. 옥계계곡의 맑은 물을 따라 흘러온 동네의 시내에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물고기를 잡기에 아주 좋다. 맑고 깨끗한 물에 이쁜 돌도 많고 무엇보다 물이 얇아서 위험하지가 않다. 정말이지 여름동안 물에서 살았다.

수영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튜브는 가져오지 못하게 했다. 자연에 몸을 맡기고 자연과 함께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이들은 물에서 예쁜 돌을 줍기도 하고, 잠수도 하고, 수영도 배우고, 철사와 모기장으로 그물을 만들어 물고기 잡기도 하고, 플라스틱 페트병을 모아서 튜브를 직접 만들어 물에서 떠보기도 했다. 황토염색을 한 천으로 물에서 이불 덮고 놀기도 하고, 누워서 하늘보기, 물장구치기, 숨오래 참기, 물 뿜어서 무지개 만들기,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기, 몸에 힘빼고 떠내려가기, 몸 씻고, 옷빨기 등 정말 정말 많은 물놀이들을 해보았다. 늘 튜브에 몸을 맡기고 놀던 아이들이 그런 것들이 없이도 그저 물만 있어도 놀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물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옥계계곡을 따라 트레킹을 했다. 본디 트레킹이란 잘 닦여진 등산로를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자연의 길을 따라 있는 대로 만나보는 모험이다. 우리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야생성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우리는 자연을 정복하고 짓밟아 이기려는 교육이 아닌 자연 앞에서 겸손하고, 내가 먼저라는 이기적인 욕심에 싸여 보이는 것이라고는 자기 앞뿐인 막힌 마음에서 벗어나 자연 안에서 한없이 작은 나를 알아가는 것이다. 자연과 친구가 되어보면 알 것이다. 정말 이긴다는게 무엇인지.

숲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 걸으며 나무의 그늘과 향을 느끼기도 하고, 물길을 따라 걸으며 바위와 돌과 물을 밟으며 한발자국씩 자연에 다가가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은 교사들의 생각만큼 모든 것을 감동으로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힘들어요”, “언제 까지 가요” 불평들도 있었지만 모든 활동을 마치고는 내가 무언가를 해냈다는 뿌듯함과 즐거움으로 마무리를 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산속에서 새소리 들어보기, 나무냄새 마음껏 마시기, 큰소리로 불러보기, 계곡을 따라 계속 걷기 등 새로운 마음껏 자연을 느끼는 시간들이었다.

2학년의 용환이는 발에 생긴 무좀이 많이 심해져서 물에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 계곡트레킹을 꼭 하고 싶어했다. 물을 따라 걸어야 하는 계곡 트레킹에서 용환이가 끝까지 물에 빠지지 않고 잘 갈 수 있을까? 용환이는 참 씩씩하게 끝까지 해냈다. 정말로 어려울 때에는 교사들이 업어주기도 하고, 친구들이 도와주기도 해서 발을 물에 적시지 않고 계곡 트레킹을 끝낼 수 있었다. 이끼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물이 깊어 돌아가기도 하고, 나무와 덩굴을 헤쳐나가기도 했던 어려운 길을 아이들은 참 잘 걸었다.

겨울에 다시 찾아간 옥계계곡과 숲에서 아이들은 내 나무를 찾아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부둥켜안고, 얼음을 깨고 얼음을 댕으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변화를 느

켰다.

바다는 또 다른 세계였다. 바다를 처음 보는 아이들이 많았다. 마지막 이틀을 지낸 동해바다에서 아이들은 지칠줄 모르고 파도를 탔다. 아주 약하게 치는 파도는 아이들에게 더 없는 친구가 되었다. 모래성을 쌓기도 하고, 바위틈에 있는 게들을 찾으로 하루종일 바위를 넘나들기도 하였다.

백주화 8월 3일 일요일 --고기잡이, 영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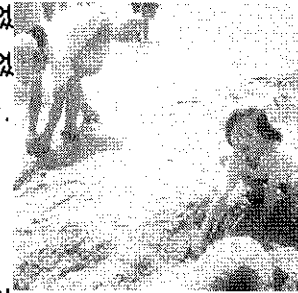
오늘 물놀이를 하는데 고기도 잡았다. 고기는 작은 것 밖에 없어서 잘 잡지 못하였다. 그래도 재미있었다. 그리고 옥수수롤 먹기전에 영색을 하였다. 황토색으로...
너무 느낌이 좋았다. 팩으로도 발랐다.

바다에서...

하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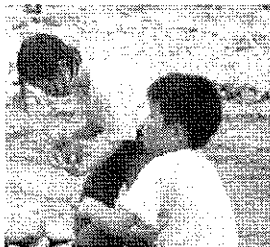
8월 9일 토요일

오늘 바다에 왔다. 정말 시원했다. 먼저 짐을 민박집에 나두었다. 그리고 바다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만들고 방파계도 만들었다. 정말 재미있었다. 그런데 파도가 쳐서 모래성이 다 무너졌다. 그래서 그냥 나도 물놀이를 했다. 정말 재미있었다.



8월 10일 일요일

오늘 집에 가는날이다. 그래서 아침에 빨리 일어났다. 일찍 일어나서 해 뜨는 것을 보았다. 정말 멋있었다. 그런데 오늘 집에 가서 아쉬웠다. 아침밥을 먹었다. 정말 맛있었다. 밥을 다먹고 바닷가에 가서 모래성을 짓고 게를 잡았다.



(3) 별자리 관찰

여름의 별자리는 거문고자리의 직녀별(배가), 독수리자리의 견우별(알타이르), 백조자리의 데네브가 큰 삼각형을 이루고 있어서 아이들과 별자리 찾기가 쉽다. 우리가 별자리를 보던 날이 칠석이 지난 다음날이라 아이들의 관심이 한층 더 높았던 것 같다. 동화책으로만 읽던 견우와 직녀가 정말 밤하늘에 별이 되어 있다는 것이 신기한가보다.

북쪽하늘의 북극성과 북두칠성, 카시오페이아 자리를 찾아보면서 길을 잃었는데 북극성을 찾아 나침반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아이들은 날마다 별자리 책을 읽으며 별자리의 이름을 익혔다.

겨울에는 제일로 밝게 빛나는 시리우스(큰개자리)와 오리온자리의 리겔을 중심으로 1등성의 별이 6각형을 이루고 있다. '거대한 시리우스의 곡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겨울에는 별자리가 더 반짝이고 많았다. 그저 보기에는 무지 많은 별들인데 오리온 자리를 찾고, 시리우스를 찾고(너무도 반짝여서 처음에는 위성인줄로만 알았다), 쌍둥이 자리의 폴룩스와 카스토르를 찾고, 마차부자리의 카펠라를 찾고, 황소자리의 알데바란을 찾았다. 듣기에도 어려운 1등성들을 공책에 그리고 외우는 아이들은 영락없는 꼬마 천문학자들이었다. 이제는 맑은 날 도시에서도 볼 수 있는 오리온자리를 아이들이 찾는다.

백주화 -별자리

영덕의 하늘은 대구와 정말 다르다. 우리는 오리온 자리와, 쌍둥이 자리와 황소자리, 마차부자리, 작은개자리등 많이 봤다. 그중에서 큰개자리의 시리우스가 제일 빛났다. 알고보니 1등성중 1등성이었다. 나는 그 시리우스가 제일 좋았다.

여름캠프때의 별자리가 생각난다. 여름에는 데네브, 카시오페아, 큰곰자리, 북극성등을 보았다. 우리는 별자리를 보면서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은하수도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다.

언제 한번 은하수를 보고 싶다. 내가 이렇게 별자리에 대해 알아가는 방법은 알다니... 다 영덕에서 캠프를 한 덕분인 것 같다.



(4) 자연의 신비한 변화

우리가 참석한 9박 10일동안 하늘은 우리에게 참 맑은 날씨를 주셨다. 너무 더운 날에는 마음껏 물놀이를 하고, 또 밤에는 적당한 더위와 또 시원함도 주고. 하루는 물놀이를 갔는데 갑자기 하늘이 시끄�면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회오리 돌풍이 모든 것을 삼킬 듯 불어왔다. 교사들은 무슨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인데 아이들은 그런 변화가 참 신기하고 새로운가보다. 그날 일기에는 모두들 돌풍사건으로 시끌시끌하다. 또 하루는 저만치에서 안개가 밀려오면서 여름비가 오는 풍경을 보았다. 교사들은 천막을 치고 배수구를 뚫느라 분주한데 아이들은 비를 맞으며 돌아다니기도 하고, 마루에 앉아 비를 구경하기도 하고, 일찌감치 방안에 모여앉아 놀기도 하

쑥, 꽃을 따오라고 하셨다. 나는 쑥만 많이 따고 꽃은 별로 따지 않았다. 파트너 언니는 쑥 말고 꽃을 많이 따다. 우린 선생님이 내주신 과제를 다 하고 김밥을 먹었다. 나는 김밥을 먹고 나서 또 다시 쑥을 뜯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까 전보다 벌레가 더 많아 조 금밖에 따지 못했다.

.....

그리고 우린 버스에 가서 화분을 꺼내어 큰 화분에 담은 다음 버스를 타고 공부방에 왔다. 언니들과 헤어질 땐 정말 섭섭했다. 나는 앞으로 이 모든 추억들을 잘 간직할 것이다. 그리고 언니와 약속했듯이 꽃을 잘 키울 것이다.

(2) 나무와 꽃 그리기, 동네 들꽃 지도 그리기

가까이에 달성공원과 오봉산이 있어서 나무와 꽃을 볼 기회가 있다. 아이들이 나무와 꽃과 친해지려면 내나무, 내꽃을 정해서 꾸준히 관찰하고 또 자세히 그리는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매주 바깥에 활동을 나가면서 아이들이 작은 풀이라도 소중히 할 수 있도록 자세히 그리기 활동을 많이 하였다. 놀이터에 피어있는 들꽃 그리기, 동네 공터에 있는 풀 그리기, 공원에 있는 나무와 꽃 그리기 등 다양한 그리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꽃을 자세히 관찰하게 되고 꽃의 특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동네에 피어있는 꽃이나 열매의 이름을 알아보기 위해서 너도나도 식물도감과 나무도감을 찾아 보는 모습에서 아이들의 작은 변화를 발견한다.

아이들의 자기가 사는 동네의 들꽃과 나무지도를 그리면서 동네에 대해서 알아가는 즐거움이 글을 통해서 잘 나타나있다.

여의주 - 우리동네 지도 그리기(풀꽃나무)

오늘 우리 동네 지도그리기를 하는데 풀꽃과 나무를 넣어서 했다.

지도그리기를 하는데 우리 동네에는 풀꽃과 나무가 별로 없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장미, 모과, 단풍나무, 능소화, 그리고 벌꽃, 프라타너스?) 잘 기억이 안나지만...

지도 그리기 할려니까 귀찮았다. 그렇지만 해보니 우리동네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별로 재미는 없었다... 그렇지만 오늘도 기분은 다른때보다 별로였지만 아주 조금은 좋았다.



김나경 - 우리동네 들꽃·나무지도 그리기

오늘은 공부방에서 '우리동네 들꽃·나무지도 그리기'를 했다. 나는 그냥 책 읽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도 그리기를 하니깐 괜히 짜증났다. 추운데 돌아다니기 싫어서 대충대충 지도를 그렸다. 그런데 동네를 둘러보니 우리 동네에 이렇게 많은 풀, 꽃, 나무가 있는지 몰랐다.

백주화 - 동네 조사

공부방에서 동네 지도그리기를 했는데 그냥 동네 지도가 아닌 들꽃을 조사했다. 우리는 추운 날씨에 우리 동네를 한바퀴 돌면서 들꽃의 이름과 뜻, 생김새를 알아갔다. 그중에서도 내가 아는 것, 우리 모두가 아는 꽃들도 있었다. 그래서 난 더 좋았다.

돌아다니느라 춥기도 했지만 내가 배운다는 것이 마냥 즐거웠다. 길으로는 싫다는 표정으로 걸아가기도 했다.

내가 배운것은... 회양목, 히말라야시다. 측백나무, 장미, 조릿대, 들깨, 민들레, 꿩이 밤, 썸바귀, 별꽃, 주목 등... 여~러가지가 너무 많이 배운 것 같다. 그래도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친구에게 가르쳐준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레인다. 내가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니... 자신감이 넘친다.

나중에 더 많이 배워서 아이들에게 자랑해야겠다. (-^^-)

조성한 - 우리동네 지도 그렸던 날

공부방에 갔다. 가서 수업의 했다. 어떤 수업의 했냐면 우리동네 지도 그리는 거다. 그 케 갖고 생과 함께 우리 동네를 조사했다. 그리고 공부방에 와서 그렸다. 우리팀 주장인 여의주누나가 거이다 했다. 우리는 집의 거이다 그렸다. 드디어 완성했다. 우리 동네지도가 참 좋았다.

하현동

오늘 공부방에서 그 주위로 동네를 한 바퀴를 돌았다. 동네를 한바퀴 돌면서 여러 가지 들꽃과 나무를 보고 들꽃나무를 적었다. 왜냐하면 들꽃나무 지도를 그리기 때문이다.

들꽃나무를 적을 때 내가 모르는 것과 아는 것도 있었다. 내가 아는 들꽃나무는 민들레, 소나무, 회양목 등등이 있다. 나중에는 들꽃이나 나무를 더 많이 알아내겠다.

한혜리 - 동네 한바퀴를 돌고나서...

공부방 수업으로 들꽃, 나무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았다. 근데... 밖에는 찬바람이 "쌩~ 쌩~" 불었다! 꽤 추웠다. 나는 처음엔 이쁜 꽃과 잘생긴 나무를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다. 근데 계속- 관찰하다보니 팔과 다리가 저리고 하필 그때에 손에 쥐가 났다.

조명순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맙다.

아, 참, 그리고 포도나무를 보니 포도가 진~~~~짜로 먹고 싶었다.

"조명순 쌤 탕큐~"

"포도야, 먹고 싶어!"

문세환

오늘은 우리 동네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는 공부방에서 주목, 회양도 봤다. 그 다음에는 꿩이밤도 민들레도 보고 했다. 그리고는 우리 동네는 한바퀴 돌아서 좋았다. 그리고는 동

아선생님이 우리가 저거은 뭐예요, 저거 주목하고 회양이라고 가리켜주셨다. 해서 공부에 도와서 능소화도 가르켜주셨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김송

오늘은 지도를 그렸다. 동네를 돌았다 그러면서 나한텐 아주 좋은 체험이 대었다. 오늘도 참 재밌었다.

박나린 -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동네를 돌아보니까 어지러웠다. 우리 동네에 꽃이 그렇게 많이 있는 줄 몰랐다. 어디로 올라왔는지 어디 내려왔는지 모르겠다.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니 포도가 먹고 싶어졌다.

여흥주 - 들꽃나무 지도 그리기 할때 느낀점

들꽃나무 지도 그리기 할때 따뜻한 느낌이 났다. 외냐면 겨울이기 때문에 집에서 색종이로 반팔티 입은 사람을 접었기 때문이다.

또 재미있는 느낌이 났다. 외냐면 나는 수업 또는 공부 등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3) 신천탐사

신천은 대구의 도심을 남북으로 흐르는 하천이다. 몇 해전만 해도 도심의 하수처리장역할을 해서 악취가 나고 생물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다. 대구시에서 하수처리시설을 강화하고 영천댐과 하수처리장에서 걸러진 물을 다시 상류로 보냄으로 수량이 풍부해지고 신천의 생물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신천상류에 속하는 곳으로 조사를 갔는데 이 근처에는 신천으로 흘러들어오는 작은 지류들 중에서 대덕산 용두골에서 흘러오는 골짜기 물이 있다. 신천조사하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고 용두골 작은계곡에서 침병침병 물놀이에 더 관심이 많은 아이들. 도심속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작은 계곡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게 어른의 몫인 것 같다.



(4) 안심습지

대구 동구 반야월 근처에 아주 큰 습지가 보전되어 있다. 과거에는 더 컸었는데 많은 개발로 사라지고 있지만 그래도 도심 근처에서 발견되는 흔치 않는 습지이다. 이곳을 가기 위해 걸어가는 농로의 주변에는 아주 큰 연잎으로 뒤덮여있다. 아이들은 새로운 풍경이 새로운가보다. 우리에게 안심습지를 설명해주는 노교수님의 따뜻함과

인자함이 아이들을 자연의 신비함에 더 빨려들게 하는 것 같다. 귀신새와 소쩍새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새에 관심을 생기고, 습지에서 놀고 있는 논병아리, 쇠물닭을 필드스코프로 보면서 또 신기해 하고, 아름다운 빛깔 무늬의 잠자리와 나비도 보았다. 탱자나무에 알집을 차려놓은 갓가지 곤충과 들의 꽃과 금호강의 굽이치는 모습을 아이들은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한혜리

7월 19일 토요일 날에 선생님과 아이들과 같이 버스를 타고 안심습지에 갔다. 가니 맨 처음으로 큰 잎 같은 것 있었다. 그런데 이름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 계속 생각을 해보아도 이름이 생각나질 않는다. 그 다음에 개구리밥을 보았다. 너~무 많았다. 그리고 물달이나 쇠물닭, 까치 등을 보았다! 좀 작기도 하여서 만원경으로 보기도 했다. 이런 것을 무슨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게다가 아이스크림까지 사 주셨다. 나는 그 교수님이 참 친절하시고, 어린이들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현동

안심습지에 가니 새와 거미와 다른 것도 있다. 그리고 습지는 아주 넓었다. 그리고 어떤 잠자리는 정말 빨갛다.

여흥주

새소리를 들었다. 소쩍새는(소-쩍!파~~ 소-쩍!파~~)라고 소리를 내고 아기소쩍새는(소-쩍!소-쩍!)이란 소리를 냈다. 귀신새(삐~삐~)소리가 난다.

그 때 커다란 거미를 보고 보경이쌤이 아주 예쁘고 예쁜 벌레를 발견해서 손바닥에다 올려놔서 공부방아이들에게 보여줬다. 이뻐다.

(4) 수목원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 위에 조성된 대구 수목원은 지금도 지반이 아주 약하게 내려앉고 있다. 쓸모없게 된 땅위에 만들어졌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넓고 잘 꾸며진 수목원에 우리 아이들은 사시사철로 다녀왔다. 자연생태학교를 계기로 날뵈터 실무자인 조명순씨가 18차의 교육을 통해 수목원자연해설사 교육을 받은 이유다. 그저 가서 보는 나무가 아니라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계절마다 바뀌는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수목 박사가 되어가고 있다. 나무 뿐 아니라 계절에 따라 피는 예쁜 꽃들도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버스를 타고 가기에는 조금 먼 거리이지만 아



이들은 오늘은 어디로 활동을 갈까하면 단연코 “수목원으로 가요” 라고 할 정도로 수목원과 친해졌다.

(5) 우포늪(여름, 겨울)을 다녀와서

여름의 우포늪은 ‘푸른우포사람들’과 체험활동을 하였다. 우포늪의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작은 우포에서 아이들은 배도 타고 곤충망으로 마름, 옥잠, 수서생물들을 잡아서 관찰하기도 했다. 우포늪을 찾는 철새에 대해서도 미리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필드스코프로 철새를 보았다.

겨울에는 아이들이 방학을 12월31일에 하게 되어서 부득이 토요일에 우포늪을 가게 되었다. 겨울해가 짧아서 많은 시간을 갖지는 못했지만 지는 저녁놀과 철새들이 집으로 날아가는 풍경들을 볼 수 있었다.



여의주

공부방에서 차를 타고 푸른우포사람들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배도 있었다.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고 채집하는 것으로 곤충물고기를 잡았다. 그리고 점심은 비빔밥 맛있었다. 우포늪에 관한 비디오도 보고 신나게 아주 재미있게 놀았다. 그리고 망원경으로 새를 보았다. 새가 노을에 비춰서 예뻐다. 그리고는 다시 출발, 정말 재미있었다.

김송

우포늪에 갔다. 우포늪은 아주 추웠다. 당연한 말이다. 외냐하면 그때는 겨울이었기 때문이다. 거기서 오리도 봤다. 그리고 철새도 봤다.



여의주

창렬이썸 차를 타고 달서천 환경 사업소에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관리하는 분이 설명을 해줬다. 물이 어떻게 깨끗해지는지 말을 해 주셨는데... 염색공장에서 나오는 물, 그리고 우리가 다 쓰는 물 전부 여기서 처리된다고 했다. 그리고 나오는 물을 보았는데... 정말 더러웠다. 차근차근 살펴보다가 재미있는 것도 있었다. 그런데 냄새가 그 곳에서 많이 났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갔다. 말씀해 주시는게 지금 흘러들어 오는 물이 4시간정도 있다가 무거운 먼지가 가라앉고 가벼운 것을 처리한다고 했다. 걸러내는 장치가 움직이는데 신기했다. 마지막으로 거품합성세제를 다시 한 번 걸러내는데 거품이 많이 있었지만 재미 있었다.

그리고 아저씨께서 이제 여기서는 물이 3급수 정도 되니까 피라미랑 잉어가 여기서 산다고 했다. 오리도 거기 있었다. 그런데 아저씨께서 해주시는 설명을 듣고 이제부터는 합성세제를 적게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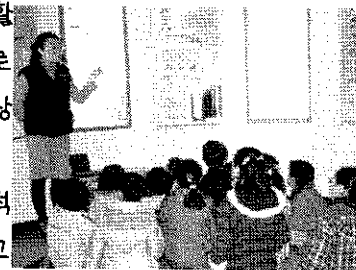
(7) 한국 자원재생 공사

아이들과 같이 다니면서 보는 것이 여전히 재활용이 잘 안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계획에 없던 한국자원공사를 방문하게 되었다. 아이들의 글에서도 느껴지듯이 아이들은 참 많은 쓰레기가 땅속에서 그토록 오래동안 썩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놀라워했다. 자원공사에 다녀온 이후 아이들은 버려지는 것들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과자를 먹더라도 무엇이 적혀있는지(재활용 마크) 보게 되었고,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에 관심을 보였다.

여의주

오늘 한국 자원 공사에 갔다왔다. 도착해서 안내 해 주는 분이 처음에 간단한 이야기를 해주고, TV를 봤다. 그리고 다시 가다가 원에 들어가서 재활용이 무엇인지 분리수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캔 알미늄 이렇게 나누는 설명을 듣고 잠시동안 플래시 상영을 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만약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땅속에서 썩으려면 종이컵은 30년, 플라스틱은 500년, 캔은 100년이라고 했다. 그것을 보고 자유시간으로 돌려보니까 이제부터 종이나 여러 가지 쓰레기 등... 그런 것을 따로 분리해서 넣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이 만큼 환경이 더러워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어서 이제부터라도 종이 같은 그런 것 들을 아껴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백주화

오늘 한국 자원 공사에 갔다. 그 곳에서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러갔다. 우리는 거기서 어떤 안내원 언니가 그곳을 설명해 주었는데, 재활용의 뜻과 어떻게 분류하는지, 분류된 것이 어떻게 재활용 되는지를 배웠다.

정말 이제 분류해야겠다 생각이 머리를 채웠다. 이제 실천을 해볼 꺼라는 생각도 있었다.

우리는 그 곳에서 영화 한편을 보았다. 그것은 쓰레기가 어떻게 버려지는지 확인하는 내용인데, 아이들이 쓰레기통을 확인하고, 정리는 것도 있고 종이(폐지)를 재활용 시키는 공장에 간 아이들이 종이가 아닌 것을 골라내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쓰레기가 썩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었다.

우리는 자유시간에 여러 가지를 구경했다. 종이로 만든 상자, 휴지갑, 모자등 여러 가지 물건이 많고 나도 만들어 보고 싶었다. 그 정도로 예뻐다. 고무로(타이어) 만든 도로(걷는길)의 보도블럭도 보았다. 많이 신기했다.

김나경

오늘은 공부방에서 한국 자원 공사에 다녀왔다. 우리는 재활용의 필요성을 배우러 갔는데 도착한 곳은 한국 자원 공사였다. 원래 이름은 한국 재생 공사였는데 올해부터는 한국 자원 공사로 바뀌었다고 한다.

우리가 들어가서 가장 먼저 본 것은 재활용품이 운반되는 과정이다. 쓰레기를 수거하고 처음에는 재생공사장에 가고 두 번째에는 쓰레기장에 간다. 거기에는 모형과 TV로 표현하였다.

2번째에는 재활용과 분리수거를 알아 우리에게 온 피해를 보여 주었는데 동물들이 죽고 어떤 아이는 팔, 다리가 없게 나와 너무 징그러웠다.

3번째에는 재활용품에 붙어있는 상표에 대해 배웠다. 영어가 그려져 있는 상표는 플라스틱이고 나머지는 한글로 써 있다고 했다.

4번째에는 간단한 비디오를 봤다. 6학년쯤 되 보이는 언니들이 시민회관, 시민공원, 지하철에서 쓰레기통을 뒤져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했다. 그리고 폐지 재활용 공장에서 폐지와 함께 있는 플라스틱, 캔, 같은 다른 것을 골라내고 있는데 플라스틱, 캔 같은 다른 것을 골라내고 있는데 미국에서 수입한 박스가 있었다. 미국 폐지를 왜 수집했냐하면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지 않아서 폐지가 모자라 수입을 하였다고 했다. 그 다음에는 폐지에서 새 종이가 되는 과정을 보았다.

그 다음엔 자유시간이었는데 나는 재활용품이 무엇으로 변하는지 입체영상으로 보고 재활용품으로 만든 물건을 만져보고 걸어 보았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타이어로 만든 보도블럭이었다. 6학년이 되어서 다시 와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보고 싶다!!!

4. 전통체험활동

1) 도자기

아이들이 중간평가해서 또 하고 싶은 프로그램 1위가 바로 도자기였다. 그전에도 도자기체험을 한 적이 있었다. 아이들이 마음대로 주물럭 거릴수도 있고, 둥글게 말아서 그릇을 빚기도 했었다. 흙 속에 공기가 들어가면 도자기를 구울때 그릇이 깨어지기 때문에 빈공간이 없도록 아주 열심히 주물럭 거려야 한다. 한마디로 공이 많이 들어간다. 아이들은 한달을 도자기만을 기다렸다. 자신이 만든 것이 어떤 모양이 되어 돌아올까 노심초사 기다린다. 그런 기억에서 인지 도자기는 아이들에게 참 인기가 좋았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만들어놓은 머그잔에 아이들이 철을 섞어 만든 특수재료로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직접 유약을 발라보고, 밑에 붙어있는 유약을 깨끗이 닦는 등 도자기 굽기 전의 과정을 아이들이 직접 해보았다. 그저 흙으로 그릇을 만들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유약을 고루 바르고 닦을 때 만든 그릇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루어야 하는 것도 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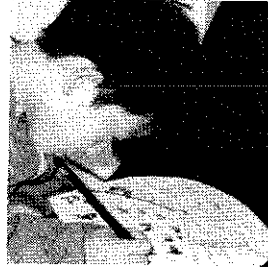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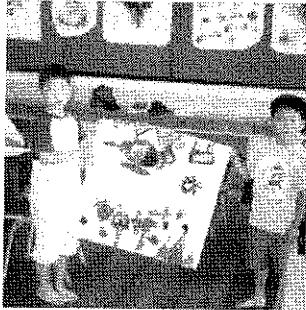
2) 동양화, 서예

우리가 머문 동네 안에 영덕예술촌이 있다. 폐교된 초등학교에 영덕교육청이 군내 학생들을 위해 예술을 배울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한 곳이다. 도자기, 동양화, 서양화를 배울 수 있는 교실과 강사가 있다. 동양화는 아이들이 참으로 접하기 어려운 과목이다. 학교에서 서예를 배우기는 하지만 4학년이상 1년에 2-3번이 전부다. 그래서 동양화는 어렵기도 하고 낯선 분야다. 교실에 들어서면 선생님과 학생들이 그려놓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참 새로운 느낌을 준다. 먹선으로 그려진 초상화와 화선지위에 그려진 다양한 과일과 꽃들, 부채에 그려진 풍경들은 아이들보다는 교사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첫시간에는 큰 화선지에 마음껏 그림을 그렸다. 먹을 써보기도 하고 물감으로 채색도 해보면서 한국화가 어떤 것인지 맛보기를 한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아이들도 무심코 그은 먹선하나가 주는 맛이 다르고 아무렇게나 칠해진 그림조차도 아주 멋있는 작품이 되니까 점점 동양화가 참 쉽고 재미난 것으로 인식한다.

늘 잘 그려야하고 깔끔해야 한다는 미술의 관념을 뛰어넘어서 흐뜨러지고 퍼지고 여백이 있어도 좋은 그림이 된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한 것 같다. 서로의 그림을 보면서 지지해주고, 인정해준다. 또 우리가 화가가 된 기분으로 부채에도 산과 계곡과 해와 바다를 그려넣어본다. 겨울에는 물고기와 꽃과 나무를 그렸는데 모두들 화

가라 할 정도로 그림 실력도 늘었고, 느낌이 정말로 좋았다. 동양화는 자주 접하지 않은 것이라 처음은 주춤했는데 조금 친숙해지니 아이들을 더 자신감있게 해주고 만족감을 주는 미술활동이 되었다.



하현동 8월 5일 화요일

달산 초등학교에서 부채 만들기를 했다. 대나무에 한지를 붙이고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 넣었다. 아름다운 부채가 되었다. 내가 만든 부채로 울어름은 시원하게 지내게 될 것 같다.

우리 조상들은 훌륭한 아이디어 발명왕이시다.

서명구

동양화는 그리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그린다고 하였다. 물고기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웠지만 재미있었다.

3) 풍물

우리는 지난해여름부터 풍물을 시작해서 아이들과 한바탕 신나게 몸을 풀곤 했다. 장소가 좁고 악기를 구하기가 힘든 어려움이 있지만 아이들이 참 좋아하여 풍물수업을 그만두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름에 큰 마음을 먹고 여름생태학교의 오전시간에 풍물수업을 다 집어넣었다. 유치부를 제외하고는 장구를 치기로 했다. 간간히 어려워도 했고 힘들어도 했지만 흥에 젖어들어가 마음을 풀곤 한다. 땀으로 뻘뻘이 되어 풍물수업이 끝나고 있을 물놀이를 생각하면 한층 신이난다.

풍물수업 역시 공부의 최고가 아니라는 걸 우리아이들에게 알려준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 힘은 다른 여러 활동에서도 크게 작용이 된다. 풍물선생님이 되겠다던 자영이가 생각한다.(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공부방에 다니지는 않는다) 꿈을 키울 수 있다는 건 자기의 내면 뿐만 아닌 다른 여러 가지-풍기는 에너지, 사물을 보는 시각등의-에도 변화가 온다. 아이들이 신명을 찾아가는 모습은 교사들과 부모님, 다른 어른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1박2일로 들어온 부모님들이 풍물패를 만들자며 그렇게 풍물을 좋아했다.

여름에 집중으로 했던 활동이 풍물이다. 매일 오후 1시간정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풍물을 쳤다. 저학년은 북을 고학년은 장고를 주로 쳤다. 이채, 삼채, 사채

백주화 8월 2일 토요일

오늘은 풍물을 배웠다. 오늘 선생님은 박학진 선생님이시다. 우리는 북, 장구만 배웠다. 나는 장구를 배웠다. 1.잡는 법 2.휘물이 장단 3.3채(자진물이)를 배웠다. 우리는 자주 연습을 하였다. 그래서 북치는 아이들과 한번 쳐보았다. 정말 신이 났다.



4) 염색하기, 꽃물들이기

산에서 황토를 조금 퍼왔다. 아이들과 함께 황토를 캐려고 했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다 산중턱이어서 교사만 다녀왔다. 산에서 막 퍼온 황토는 돌이 많아서 채에 받쳐서 돌을 골라내고 고운 황토에 소금을 넣어서 염색을 한다. 물놀이를 하는 개울가에서 큰 통을 놓고 물놀이를 하던 아이들이 수시로 와서 20번씩 또는 그이상 주물렀다가 또 물놀이 가고 또 와서는 손으로 조물거리면서 황토염색을 했다. 도시에서는 주물거린 광목천을 행굴려면 수돗가에서 여러개의 큰통에다 여러번 헹구어내야 하는데(우리 아이들은 미리 소목을 가지고 염색을 해봐서 이것이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은지를 알고 있다) 개울에서는 그냥 흐르는 물에 천을 던져두면 물 따라 흘러가면서 황토물이 씻기기 때문에 얼마나 헹구기가 편하고 쉬운지. 아이들은 이불을 헹구면 또 재미난 물놀이꺼리를 찾는다. 이불을 덮고서 같이 물에서 떠내려가기, 누가 멀리 이불을 던지나, 머리에 쓰고 햇볕가리기 등. 헹구어진 이불은 돌작발에 널게 펴서 말리는 데 정말 1시간만에 바짝 말랐다. 수건을 안 가져온 애들은 수건처럼 닦기도 하고, 옷이 젖은 아이들 옷삼아 휘감아서 집으로 돌아오기도하고, 광목이불하나가 참 여러 가지 변신을 한다. 황토는 흙이어서 개울에서 빨아도 아무런 해가 없다.

염색한 황토로 이불과 베개를 만들고 나서 달개비, 봉숭아, 풀잎으로 꽃물을 들였다. 천에다가 꽃잎을 두고 그냥 쥘기를 하면 정말로 자유롭게 물들이기를 하게 되고, 돌위에서 쥘은 꽃잎으로 물감처럼 천에다가 염색을 하면 의도된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여러방식으로 꽃물들이기를 했다.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이기도 하면서.

백주화

공부방에서 천연염색을 하였다.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았다. 나는 이빨을 빼러 치과에 갔다와보니 염색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와 향숙이 언니는 뒤늦게 시작하였다.

하지만 좋은 점은 한 번 더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은 것과 큰 것을 하였다. 정말 재미있었다. 이렇게 재미있을 줄이야 미처 몰랐다. 나와 향숙이 언니는 두가지를 하였다. 정말 예뻐다. 손수건을 말리기 위해 건조대에 널었다. 다 끝나면 매일 가지고 다닐 것이다. 완성작품이 기대가 크다.

여의주

오늘 오늘 공부방에서
염색을 했다. 웬일일까
공부방에서 염색을 하고...
들어오자마자 한약냄새
솔솔 한약은 이상한 냄새
음~ 조물락 조물락 꺾꺾 짜서
하얀 못생긴 천이 이렇게 예뻐졌네
꺾꺾 짜고 다시 염색하고
한약냄새가 코를 찌를 것 같지만 예쁜 천 보고 기쁘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재밌다 재밌다.

김나경 --염색

하이얀 흰 천을
예쁘게
잘라

염색물 속에서
천을
조물락 조물락

천을 조그맣게
모아서 모아서
실로 실로
공공 묶고

천을 꺼내
냉수에 씻고
실을
빼 말렸더니

예쁜
염색들 사이에서
“이 색 할까, 저 색 할까?”
고민하다가

“아이, 예쁘다”
하는 환호 소리가
터져나온
예쁜 빨간 천

“이 색 하자”

말하고

하현등 8월 7일 목요일

영덕으로 여행을 온지 7일째 되는 날이다. 오늘은 체험 학습으로 황토흙을 가지고 베게에 염색을 해보았다. 황토흙에 다가 물을 붓고 베게앞을 넣어서 주물주물 하니깐 천에 황토색으로 염색이 되었다. 천연염색을 하니깐 빗갈도 예쁘고 강물에 오염도 되지 않고 자연보호도 되었다. 내년에도 강에 다시 와서 물놀이를 해야지...

꽃물들일때 - 백주화

우리는 봉선화로 물을 들였다. 우리가 직접 봉선화 꽃잎을 따서 꽃잎을 천에 대고 돌로 찜는다. 물론 그전에 꽃잎과 백반을 섞고나서 찜는다. 우리는 모두 자기가 만든 베개에 색을 넣었다. 보경이생 천에 우리가 도와 주었을때 난 재미있었다.



5) 연만들기

전기줄로 뾰뾰한 도시에서 연을 날리는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가끔씩 날고 있는 연도 비닐연이 대부분. 겨울에는 도시아이들이 잘 하지 못하는 전래놀이 활동에 많은 중점을 두었다. 특히 연만들기는 연살을 깎는 활동부터 연만들기, 연실 감기, 연날리기까지 비교적 간단하지 않은 활동이다. 연살을 얼마나 정성껏 가볍고 가늘게 다듬느냐가 연을 날리느냐 못날리느냐 좌우한다. 칼로 해야 하는 활동이라 위험하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활동이지만 아이들이 직접 다듬어서 만들기로 했다. 아이들이 중심살과 활살을 만들 수 있도록 잘 말린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어서 칼로 조심스럽게 다듬었다. 족히 30분을 오로지 자기 대나무 살만 보면서 진지하게 다듬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산만했던 아이라 할까. 다되어가는데 싶으면 딱 부러지고, 또 연살을 창호지에 붙이다 딱 부러지고, 또 다시 연살을 다듬지 않으려면 연살을 야기다루듯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이들은 스스로 배우게 되었다. 누구든 자기가 만든 것은 다 소중하고 좋은가보다.

아이들은 연을 하늘에 날리기 위해 운동장이며 동네골목을 뛰어다닌다. 조금만 날았다 싶으면 정말로 좋아한다. 그 연을 날리기 위해서 한시간씩 실 감기를 하기도 했다. 종이가 찢어지면 연살을 떼어서 또 다시 만들고, 또 다시 만들고 하면서 혼자서 가오리 연을 만드는 법을 배웠다. 처음에는 1시간이 걸렸는데, 다음에는 40분, 다음에는 20분.

수작업활동에 많이 둔감한 남학생들도 연만들기만큼은 참으로 열심히 다듬고 만들었다. 연만들때에는 조금 둔해도 연을 날릴때에는 정말 날렵했다. 단순히 뛰어놀기만 잘 하던 아이들이 새로운 놀이꺼리를 찾아서 집중을 하고 수작업을 하고 또 어떻게 만드는지 기억을 하면서 아이들 스스로도 자신감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현동 1. 10. 토요일 --연날리기

오늘 낮에 연만들기를 했다. 그때 연을 한 번 만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한 번 만들어 보니까 쉬었다. 그리고 운동장에서 날렸는데 잘 안 날라갔다. 그래서 다시 날렸는데 잘 날라갔다.



조성환

1월 6일 화요일 --연만들었던 날

오늘 아침 8시 몇분에 일어났다. 그리고 아침 밥의 만들었다. 콩나물국과 오뎅맛살볶음의 먹었다. 그리고 연만들기를 했다. 먼저 실을 감았다. 그리고 나무를 갈랐다. 그리고 한지를 가지고 연을 만들었다. 우리모듬 유리바다는 다른모듬은 배추 볶으로 갖고 우리모듬은 연만들기를 했다. 그런데 김송이 실수로 보경이샘연의 발랐다. 연이 찢어졌다. 그래서 보경이샘이 따른 한지로 연이 찢어전는데에다 풀붓어서 다시 원래대로 했다. 그런데 우리모듬은 전부다 판방앗 가서 놓고 있고 보경이샘은 혼자 큰 방에서 연만들고 있었다. 그래서 보경이샘이 하나서 우리방에 들어와서 지금 노는거가 라고 소리쳤다. 그케 갖고 나는 고개를 숙으렸다. 죄송했다. 그래서 내가 우리모듬 보고 연만들어 가자고 했다. 그런데 우리모듬은 안 갔다.

그래서 내 혼자 보경이샘이 있는 방에 가서 연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보경이 샘에게 만이 미안하다.

6) 불놀이, 나무구해오기, 고구마구워먹기

동네 앞에 있는 시내의 넓은 자갈밭은 불놀이를 하기에 참 좋다. 아이들이 큰 돌을 주워와서 둥글게 쌓아두고 흩어져서 나무를 구해왔다. 들꽃활동을 할 때 미리 구해온 나무들도 있었지만 잔가지와 주위의 굵은 나무들을 좀 더 모아오길 했다. 남학생 몇 명에서 아주 큰 나무를 찾아서 6-7명의 아이들과 함께 20분을 들고 왔다. 뿌리가 워낙 무거워서 몇 발을 옮기고 쉬면서 들고 온 것이다. 캠프화이어에서는 늘상 어른들이 쌓아놓은 나무들에 불이 지피면 그저 앉아서 구경하고 노래부르다 끝나버리는데 아이들이 준비하는 불놀이는 아이들과 교사가 구해오는 나무를 같이 자르고 같이 쌓아서 같이 불을 지핀다. 아이들은 제각각의 일을 한다. 나무를 계속 집어넣는 아이, 돌을 줍는 아이, 냉이뿌리를 찾으러 간 아이, 소꿉놀이를 하거나 강가에서 노는 아이, 고구마를 굽는 아이 등. 자유로운 활동은 군고구마를 먹을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다 모이게 된다. 여전히 뜨거운 숯불의 기운을 느끼면서 맛있게 익힌 군고구마를 먹으면서 손과 얼굴이 시끄�멩게 된다. 아이들이 직접 해 온 나무로 구운 고구마라 더 맛있고, 신기하다. 강바람의 매서움도 별로 춥지도 않다.

백주화 1월 7일 수요일 --나무를 줍다가...

오늘은 캠프파이어를 하였다.

모듬전체가 다같이 하였다. 우선 아이들이 나무를 주워왔다. 그리고 냇가에 갔다. 거기

서 준비를 하는동안에 우리는 이상한 풀을 발견하여서 캐어보았더니...뿌리가 산삼 같기도 한 것이 냉이같기도 했다. 우리는 깨끗이 씻어서 불에 구웠다. 탄 것이 고구마 냄새가 났다. 그러나 먹으니... 매우 매웠다. 그래서 벨었다. 엄마가 먹지 마라고 해서 이제 먹지 않는다. 재미는 있었다. *^-^*



여의주 1월 7일 수요일 바람부는 날 --불놀이

오늘은 불놀이를 했다. 오전수업에 했는데 계곡 근처에 가서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피웠다. 그리고 하면서 나경이랑 주화가 냉이 같은 것을 가져왔는데 컸다. 그리고 불이 꺼질쯤에 고구마를 구어 먹었는데 맛있었다.

그리고 나경이가 발견한 냉이를 찾으러 나갔는데 한꺼번에 3개나 찾았다. 그런데 1개는 주화에게 주고 나머지2개는 내가 했다.

오늘은 불놀이를 해서 뜨거웠지만 재미있었다.

김나경 1월 7일 수요일 어제보다 더 추움 --불놀이

오늘은 오후 수업때 불놀이를 했다.

계곡 근처에서 불놀이를 했는데 나는 가자마자 돌을 주웠다. 물론 주화와 헤리와 함께!!! 그런데 불을 피우고 펄감을 찾는데 신기한 식물이 있어서 캐서 동화선생님께 여쭙어 보았는데 냉이중인데 이름은 땅냉이 인가? 이름은 잘 모르겠다. 어쨌든 우리는 캠프파이어를 재미있게하고 솥에 고구마를 넣어 군고구마를 먹었다. 고구마는 꿀 맛이였다!!!

한해리 1월 7일 수요일 ☺→☺ --불놀이

공부방 아이들과 같이 불놀이를 하러 냇가에 갔다. 날씨가 양 추운지 알았는데... 꽤 추웠다. 그래서 목도리로 입까지 말았다. 그 다음 모두 응기종기 둘러싸여서 앉았다. 앉아서 불을 떼운 다음, 불이 탈 때 까지 기다린 다음, 고구마를 던져 넣었다. 많이~ 넣었다. 한참을 기다린 뒤, 우리들은 익은 고구마를 막대기로 콧아서 고구마 껍질을 깬 뒤, 맛있게 먹었다. "아- 맛있어!"

김승 1월 7일 수요일

오늘은 내가 아주하고 싶었던 불놀이도 했다. 그리고 오늘은 일기를 너무 빨리 적어서 별로 저글 것이 없다. 그래도 적을 건 있다. 불놀이하기 전에 자연학습도 했다. 이제 자연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도 참 재미있었다.

7) 전래놀이

비석치기, 긴줄넘기, 공기놀이, 옷놀이, 사방치기, 길막기, 숨바꼭질, 실뜨기, 소꿉놀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이들이 영덕에서 머물면서 참으로 많은 전래놀이를 했다. 누가 무엇을 하자고 얘기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서로 모여서 쉬는 시간이면 각자 하고 싶은 놀이를 하고 있다.

손뜨개 실은 실뜨기를 하기에 너무 좋았다. 어릴 때부터 하던 실뜨기부터 마술 실뜨기까지 잘 꼬이지도 않고 적당히 굵어서 어린아이들이 해도 괜찮았다. 옷은 대나무로 깎은 아주 작은 옷을 가지고 놀았다. 작은 옷은 여러 패가 함께 할 수도 있었고, 많은 공간을 차지 하지도 않았다. 소리도 참 좋았다. 강가에 많은 돌 중에서 공기돌과 비석돌을 주웠다. 많은 공기도 해보고, 저학년은 코끼리공기, 바보공기도 해보았다.

비석치기, 사방치기도 배웠다. 마음껏 돌을 던지고 아무렇게나 잘 세워지는 흙은 비석치기를 하기에 너무나 좋았다. 1단계를 넘기기가 힘들었지만 아주 어린 아이들만 빼고는 골고루 돌을 맞추어서 넘어뜨리기도 했다. 돌을 맞추어 넘어질 때는 정말 함성과 괴성이 쏟아졌다. 대개의 놀이는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가 있어서 우열이 가려지는데 비석치기는 할 때마다 돌을 맞추는 아이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재미나게 놀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놀이는 단연 긴줄넘기였다. 아침 운동을 가서도 할 만큼 긴줄넘기를 좋아했다. 혼자서도 하고, 학년끼리도 하고, 줄을 서서 하기도 하고, 가족끼리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긴줄넘기를 거의 매일 하였다. 처음에는 운동장에 가서 지구본이나 그네타기를 하고 놀았는데 다양한 전래놀이를 배워갈수록 아이들은 끼리 모이면 사방치기, 비석치기, 술래잡기 등 전래놀이만을 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술래잡기를 하게 되면 온 동네를 뱅글뱅글 뛰면서 돌아다닌다. 조용하던 시골마을이 시끌시끌 해진다. 아이들은 정말 지칠줄 모르는 철인같다. 동네를 30바퀴 이상 뛰어다녀도 더 하고 싶어서 난리들이다. 동네어른들이 사람사는 맛이 나서 너무 좋다하신다. 아이들 소리가 나고 웃음소리가 들려서 너무 좋다 하신다.

조성환 - 비석치기하던 날

비석치기는 전래놀이이다. 어떻게 하나면 먼저 8명이 '뽀뽀뽀뽀뽀'로 4명씩 편을 짜고 그 다음에는 돌맹이를 줍고 난 다음에 대표끼리 가위바위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긴 사람이 돌맹이를 던져갔고 진사람이 세운 돌맹이에 맞추는 놀이다.

하현동 - 비석치기

비석치기는 옛날에 주로 하던 놀이다. 비석치기를 하는 방법은 편을 나눠서 돌을 집는다. 그 다음에는 어느 편이 먼저 할지 정하고 돌을 놓는다. 그리고 물에 있는 여러부위로 돌을 올려서 던져서 돌을 쓰러트린다.



문세환

비석치기 한니깡 재미있고 즐겁기 하고 그리고는 나는 비석치기는 돌을 마차서 좋았다. 그리고는 나는 비석치기 많이 했다.

백주화 - 긴줄넘기

캠ป์때 긴줄넘기 대항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웃겼다. 왜냐하면 나린 아빠 때문이다. 다 돌 뛰는 모습이 자연스러운데, 나린이 아빠는 다리가 뻗쳐서 뛰는 모습이 너~~무 웃겼다. 그래서 막 웃었다. 부모님들이 정말 잘 뛰셨다.(우리엄마도)*^o^* 아이들도...

가족대항에서도 아이들과 어른이 정말 잘 뛰어서 거의 10개씩은 넘은 것 같다. 요번에는 긴줄넘기가 너무 웃겼다. 기억에도 남고....

문용환

나는 운동장에 가서 긴줄넘기를 하고 재미있었다. 긴줄넘기를 할 때 돌릴때에는 팔이 아팠지만 그래도 열심히 돌렸다. 조명순선생님하고 조월숙선생님하고 많이 돌려주셨다. 긴줄넘기하면서 뛰는 것이 너무 좋았다. 무지 많이 뛰었는데 잘 넘지는 못했다.



8) 떡만들기와 감따기

여름학교 중에 24절기중의 하나인 칠석이 있었다. 칠월칠석은 견우직녀가 만나는 날인데 아이들과 별이야기를 통해서 동화책을 읽고 별자리를 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이날은 24절기중의 하나인 만큼 아이들과 함께 인절미를 만들었다. 찹쌀을 찌고 떡판과 떡메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직접 떡을 치고 콩가루에 묻혀서 인절미를 만들어 먹었다. 보통 때에는 한두개만 먹던 떡인데 이날은 저녁밥이 될 정도로 배불리 먹었다. 겨울에는 간식으로 인절미를 해먹었는데 양푼이에 절구로 찿어서 인절미를 만들어먹었다. 다른 방법으로 떡을 만들어도 떡이 된다는 것에 아이들이 참 놀라워하고 재미있어 했다. 콩가루가 조금 부족해서 맛은 좀 덜했지만 아이들은 자기가 만든 모든 것을 맛있어했다.

한겨울인데도 시골의 감나무에는 감이 달려있다. 감을 딸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덕분에 우리가 아주 맛있는 감을 많이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대나무로 감따기 장대를 만들어서 감을 따다. 이미 홍시가 다 되어있어서

땅에 떨어지는게 더 많기는 했지만. 땅에 떨어진 감은 풀잎이나 흙을 털어내고 그 자리에서 먹고 잘 탄 감은 집으로 돌아와 다른 친구들과 골고루 나누어 먹었다. 아이들은 어떠한 간식보다도 감을 진짜 좋아했다. 나무가짓에 달려서 껍질채로 입벌려 한입에 먹는 그 맛은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맛이라고 했다.

밭에도 팔고 남은 배추와 무가 그대로 있었다. 조금 작아서 팔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밭에 그냥 둔 모양이다. 아이들과 함께 배추를 뽑았다. 그리고 겨울학교 기간내에 배추쌈, 배추국, 배추채래기 등 배추를 참 많이 먹었다. 배추는 여전히 고소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 배추쌈을 좋아했다. 배추쌈을 잘 먹고 감을 껍질채 먹는 아이들의 입맛과 추억은 일상생활에서도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유남균 - 감 따먹기

감? 감을 따러가는데 창현이랑 명확이 오빠야랑 가지가는데 멀춰 그리고 감이 퍼려져는데 너무 아가워다. 감을 따러가니까 기분이 좋아다!



떡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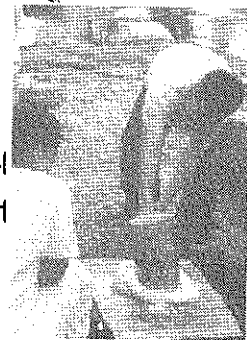
1월 7일 수요일

오늘 간식을 먹을때 떡을 먹었다. 떡을 만들때 떡대를 가지고 칠때 힘은 들었지만 많이 하다보니 재미 있었다. 떡을 다 찧고 콩가루를 부리고 찹쌀도 부렸다. 그리고 내가 떡을 석을 때 이상하게 석어서 손에 떡이 다뭉어서 손을 씻었다.

조성환 1월 8일 목요일 --찰떡만들었던 날

오늘 떡을 만들었다.

떡대로 떡을 찧어 내렸다. 떡이 다 튀겼다. 그래서 선생님이 시게하지 마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보통으로 쳤다. 잘 안 튀겨나왔다. 그래서 결심했다. 칠때 모든 것을 시게치면 안된다는 걸.



김송 1월 8일 목요일

오늘은 떡도 만들고 지도도 그렸다. 무슨 지도라면 꽃지도다. 그 지도를 그리려다 너무 힘들었지만 참았다. 그래도 아시운 일이 있었다. 불놀이를 못했는 거다. 그래도 떡만들기가 재밌었기 때문에 오늘은 재밌었다.

5. 모듬활동

1) 전체회의, 모듬회의, 모듬장회의

생태학교의 모든 생활은 모듬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생태학교와 같은 캠프뿐만 아니라 공부방에서의 많은 활동들이 거의 모듬으로 이루어진다.

여름에는 고학년 여·남학생모듬, 저학년남학생모듬, 유치반모듬 등 4모듬으로 진행이 되었다. 모듬짜기는 구성원의 성격과 학년에 차이를 주어 구성을 해보았다. 유치반인 고구마모듬은 7세와 1학년으로 구성되었고,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신나게 놀수있게 모든 활동을 진행하였다.

저학년남학생모듬인 고소한 그림은 1,2학년 4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각자의 개성이 강하고 너무나 다른 성격을 가진 아이들 넷이 만나서 좌충우돌 많은 일들이 터졌다. 많이 울기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많이 인정하게도 되었다.

남학생모듬인 땅비사리는 중학생 한명이 있어서 활동을 많이 리더해주었고, 박쥐가 나오는 집에서 따로이 생활을 했다. 손질을 하지 않은 집주위로 온갖 풀들과 질퍽한 땅으로 관찰거리가 굉장히 많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수수 떨어져있는 박쥐의 똥을 치우면서 관찰을 하고, 개구리와 개구리알, 그리고 많은 곤충들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관찰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찾아 발견한 곤충을 함께 이야기하기를 많이 좋아했다. 그래서 다른 모듬친구들에게 한번씩 새로운 곤충이 나타나면 다른 집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도 땅비사리의 곤충박사들에게 물어보려고 큰소리로 부르곤했다. 활동성이 크고 힘이 넘치는 모듬이라 뭐든지 제일 앞장서서 했다.

여학생모듬인 옥수수는 참 차분한 모듬이다. 땅비사리나 고소한 그림이 땀을 흘리며 뛰고 있을때 옥수수는 책을 읽거나 들꽃을 보고 그림을 그리곤 했다. 많은 활동을 교사의 개입없이 알아서들 할수 있다. 때로는 교사들을 돕는 도움이의 역할도 많이 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따르는 것과는 달리 언니, 누나로 교사라는 나이많은 어른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런지 아이들이 잘 따랐다.

여름학교에서 6일은 교사들이 짠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고, 나머지 4일은 아이들이 전체회의를 해서 스스로의 시간을 만들었다. 중간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이 활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지금까지의 활동을 바탕으로 서로 의논해서 계획을 잡고,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혹시 그저 놀기만 하지 않을까 하는 필요없는 걱정을 했었는데, 아이들은 여태까지 해오던 프로그램의 많은 것을 그대로 진행하였다. 명상하기, 세밀화그리기, 숲 체험 등. 때로는 저녁늦게 까지 회의가 계속되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함께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는 한사람 한사람이 교사가 된 듯 많은 활동들이 더 잘 이루어졌다.

겨울에는 여름캠프와 공부방의 많은 활동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부분적으로 직접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하였다. 5학년 여학생들이 한모듬씩을 맡아서 전학년이 골고루 들어가게 했고, 7세 아동들은 감자로 하여 필요한 활동에 함께 하는 걸로 했다. 모듬은 제비뽑기를 해서 구성이 되었는데 이번엔 학년도 골고루, 같은 형제도 없이 구성이 되어 우리끼리 많이 신기해하며 즐거워했다. 캠프를 가기전부터 모듬

끼리 모여 식단을 짜고 영덕을 어떻게 찾아가야되는지에 대해 의논을 했다. 참으로 서로를 잘 도와주고 격려할 수 있도록 짜여졌다.

아침마다 모듬회의를 통해서 모듬활동을 반성하고 각자의 생활태도를 바꾸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아이들이 각자의 단점을 적고 그것을 고치기 위한 약속도 적고 며칠동안 얼마나 바뀌었는지 관찰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아이들은 자기의 성격을 참 잘 알고 있었다. 교사가 알고 있던 문제행동을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잘 울거나, 욱을 잘하거나 문제행동을 컸던 아이들이 자기의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킨 아이들에게 서로가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본인들도 스스로의 노력에 참 대견해 했다.

저녁시간에는 학년별 모임을 가져 5학년들의 모듬장회의, 3학년들의 책읽고 이야기 나누기, 저학년들의 전래놀이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의 활동이 여름보다 겨울에 확실히 더 안정적으로 진행이 된 것 같다.

저녁시간에 이루어진 모듬장회의에서는 다음날의 일정표를 적고, 모듬의 장이 가지는 책임으로 무거웠던 어깨와, 모듬원이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힘들었던 부분을 이야기하고 푸는 시간이다. 이시간 역시 아이들이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 회의를 한다. 그렇지 않을때는 책을 읽고-5학년들은 위인전을 읽었다-자신의 느낌이나 궁금한 것을 이야기하고, 뜨개질을 하면서 모듬에서 일어난 여러사건들과 자기들의 얘기를 했다.

3학년들의 책읽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음에 따로 이야기를 하려한다. 캠프를 가면 신나게 논다고 책을 볼 시간이 있을까 하지만 책읽는 시간을 맡고도 아이들이 읽기를 놓지 않기 때문이다.

저학년모듬은 책읽기보다는 전래놀이를 많이 하였다. 아이들 중 아직도 글을 잘 모르는 몇 명이 있어서 글없는 그림책(가브리엘뱅상의 책)을 읽었다. 간결한 스케치지만 깊이있는 그림책이었다. 아이들과 짧게 읽은 소감을 나누기도 했지만 8명이나 되는 아이들과 다양한 구성원들로 인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원래부터 힘들었다.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어주었다. 아이들이 동화책 읽어주는 것을 참 좋아한다. 그리고 윷놀이, 종이접기, 종이오리기, 실뜨기, 공기놀이 등 다양한 놀이를 하였다. 아이들이 놀이에 참 몰입을 잘 했다. 무엇을 하든지 재미있게 했고, 금방 응용을 해서 교사의 도움없이 자기들끼리 자연스럽게 놀았다. 활동이 끝나고 방청소를 하고 이불을 옮기고 이불을 깔고 옷을 벗고 자는 것도 어린아이들에게는 놀이이기도 했다. 불을 끄고 한참을 소곤거리면서 얘기를 하다 교사의 엄포가 있어야지만 잠을 잔다. 잠들기 시작하면 금방 코고는 소리가 날 정도로 아이들은 깊은 잠을 잔다. 낮시간동안 워낙 열심히 뛰어놀아서다.

여름에는 물놀이가 많고 계속 바깥에서 활동을 하고 옷을 빨거나 뒷정리해야 하는 일이 많아서 일기쓰기를 제외하고는 활동일지나 글쓰기를 많이 하지 못했다. 그러나 겨울에는 활동에 깊이를 더하고 아이들이 활동일지를 써서 활동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그리고 캠프 장소에 도착해서 우리끼리 와서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칭찬을 해주었다. 다음에는 우리끼리 전라도도 가고 의정부도 가고 전국을 돈다고 했다. 오늘은 정말 즐거웠다. 그리고 가기전에 무서웠지만 한번 해 보니 재미있었다...^^

기분이 정말 좋았다.

김나경

1월 4일 일요일 쌀쌀하면서 맑음 -- 방학

방학 중 처음으로 쓰는 일기이다. 내 방학 계획은 딱딱하다 어머니 대신 밥 차리고 방학 동안 숙제하고 우리 꽃순이(시츄 종류의 애완견)놀아주고 밥주고 청소하고...

내일은 캠프를 간다. 영덕에 가는데 선생님들 없이 주화와 의주와 내가 각 모듬의 장이 되어 모듬원들과 함께 영덕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는 모듬장끼리 회의 한 결과 모듬이 다 모여 함께 가기로 했다. 너무 긴장된다(청심환이라고 사 먹을까?) 어쨌든 내가 모듬장이니까 잘해야겠다.!!!

1월 5일 월요일 시원함 --우리 공부방 친구들과 온 영덕

오늘은 영덕에 온 첫날이다.(지금은 방금 의주가 한 김치 덮밥을 먹었는데 배부른지 배고픈지 모르겠다.) 오늘은 선생님 없이 영덕에 갔다. 모듬끼리 따로 가는데 버스가 안 와서 전부터 가게 되었다. 우리는 버스가 오자 646버스를 타고 등부정류장에 갔다. 일단 가서 표를 사고 1시간 가까이 기다렸다가 탔다. 가는 길에는 너무 지루해서 그냥 잤다. 그러나 1시간도 못 가서 깼다. 아까전에는 시골벽적 했는데 애들이 자서 그런지 너무 조용했다. 다시 자고 싶었는데 잠이 안와서 못갔다.

다시 버스에서 내려서 달산 옥계원당 앞에 내려서 창열이 선생님 집에 갔다.

오늘은 왜일인지 길이다 생각났다.

너무나 피곤 했지만 그냥 걸어 갔다. 내일도 피곤 하겠지?

백주화

1월 4일 일요일 --설레임

나는 내일 갈 캠프가 정말 설레인다. 내일 캠프를 가는데 모듬끼리 차를 타고 영덕까지 가야해서 겁이 났지만 그래도 난 좋다. 다음엔 영가가 외할머니댁을 동생과 내가 같이 가려고 하셨다. 여행이 점점 재미있어지고 있다. *^_^*

1월 5일 월요일 --캠프

오늘 공부방아이들과 영덕 달산면사무소(옥계원당)에 캠프를 갔다. 우리는 모듬끼리 나눠 가는데 아이들이 우리를 따라 왔다. 나는 영덕옥계원당에 가기위해 646을 타고 등부정류장 까지 갔다. 그리고 등부정류장에서 도착하자마자 표를 산뒤 11시 30분에 가는 차를 타기 위해 지~~~~루하게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멀미를 하면서, 자면서 영덕에 가까운 휴게소에서 멈추었다. 거기엔 바다라서 바다에서 놀다가 20분까지 오라는 버스기

사아저씨의 말이 떠올라서 얼른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위는 다시 지겨운 차를 타고 영덕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나서 운전기사 아저씨가 11개인데, 9개로 착작하였다(표를) 그래서 찾았다. 다행이었다. 우리는 영덕정유장에서 왕뚜껍(컵라면)을 사먹고, 엄마께 전화를 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시내버스를 타기위해 늘면서 기다렸다.

그때 송이가 성환이에 의해 울었다. 그리고 3시30분에 시내버스를 타고 달산 면사무소에 도착하였다. 재미있었다.~ 멀미도 했지만^^?

조성환

1월 5일 월요일 --영덕에 갔던 날

오늘 7시 1분에 일어나서 공부방에 갔다. 오늘은 캠프가는 날이었다. 준비물도 챙기고 했다. 영덕에 간다고 했다. 중요한 얘기를 해주었다. 보경이샘과 조명순샘이 중요한 얘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버스 타고 동부정류장까지 갔다. 가서 버스타서 대지리로 갔다. 드디어 영덕에 왔다.

참 참 좋았다. 그리고 창렬이샘 집에 왔다. 계획의 짜고 저녁밥을 먹었다.

한혜리

1월 5일 월요일 말씀→흐림 --영덕캠프

학원에서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영덕에서 지내기로 했다. 우리가 지내기로 한 곳은 우리 학원 "유창렬"선생님이시다.

창렬이 선생님 집까지 가는데 공부방에서 출발을 하고, 646버스를 탄 뒤, 동부정류장에서 공부방 아이들과 같이 한사람에 1명씩 각자 차표를 끊고 영덕으로 가는 차를 탔다.

타서 3시간 만에 휴게실에 도착했다. 휴게실에 갔다가 버스를 다시 타고 내자리에 앉았다. 출발할 때 나도 모르게 잠이 들게 됐다. 일어나 보니 도착해 있었다.

그런데 도착했을 때 운전기사 아저씨가 표가 2장이 모자라다고 하셨다. 그때 우리는 황당하였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11명 있었는데... 한참 뒤에 운전기사 아저씨가 됐다고 하셨다. 그리고 보니 아저씨 반대쪽 손에 있었던 것이다. 그 아저씨가 건망증이 심한가 보다. π.π

김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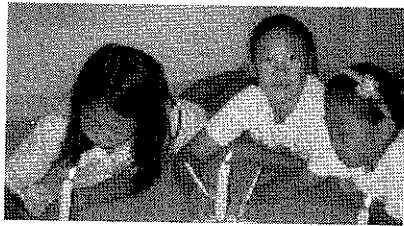
1월 5일 월요일

오늘은 캠프를 갔다. 엄마가 보고 심팍지만 꼭 참았다. 그래도 참는 것도 지금뿐 우리 혼자 여행 하는 것도 아주 재미있었다. 어떡해 재미있다면 울기 했지만 우리조장이 위로하고 조성환이 형도 나를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가고 있는 대지리가 보였습니다. 오늘은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3) 책 읽고 이야기

여름에는 곤충, 나무, 풀, 별과 관련한 도감, 동화책 등 참으로 많은 책을 들고 갔다. 아이들이 발견하는 모든 것들을 교사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가 책을 찾아서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이들은 쉬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들꽃, 나무, 곤충도감을 들고서 찾아보고 읽어보았다. 별자리를 보고 난 뒤로는 별자리책이 서로에게 엄청 인기가 있기도 했다. 어떤 아이가 읽은 원병오선생의 새이야기가 재미있다고 하면 그 다음날에 먼저 그 책을 읽으려고 줄을 서있곤 했다. 차를 마시며, 음악을 들으며, 함께 노래를 부르며 책을 자유롭게 읽었다.

겨울에는 모듬끼리 함께 주제를 정해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중학년 아이들 중 책읽기를 해도 주제를 파악하거나 집중해서 책읽기를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책읽기 도구지를 만들어서 함께 읽은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아이들이 정리하게 하고 또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고학년은 주로 원경선, 이봉창, 윤봉길 등 위인전을 읽었다. 책을 읽으며 궁금한 것을 서로 질문하면서 책을 읽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받기도 했다. 뜨개질도 하고 모듬장회의도 하고 일정표도 그려야 하는 모듬장들이 언제 책들을 읽었을까 싶은 정도로 아이들은 틈나는 대로 책을 읽었다.



III. 평가

1. 전체

여름과 겨울의 자연생태학교와 봄, 가을의 사전, 사후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했던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다.

아이들의 표현에서 자연이 참 좋다. 고맙다. 편안하다. 친구이다. 신비롭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쓰인다. 아주 작은 풀을 관찰하고, 나무와 친구하고, 물에서, 바다에서, 계곡에서, 숲에서 아이들은 자연의 놀라운 모습과 변화를 보게 된다. 그저 며칠간 다녀오는 캠프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빈곤지역의 아이들은 표현을 잘 못한다. 말로서도, 그림으로서도 표현하기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려운 시간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내 나무에게 이야기를 하고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1년의 과정을 지나면서 아이들의 글실력이나 그림실력이 엄청나게 발전했음을 발견한다.

짧은 글이나 그림이라도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생각해야 하고, 관찰해야 하고, 느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제 그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아이들은 즐거운 것도, 고마운 것도, 신비한 것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자연의 순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2. 모둠활동

개인으로만 지냈던 시간이라면 아이들이나 교사 모두가 참 힘들었을 거다. 긴 시간을 20명을 넘는 아이들 개인을 뒤흔다거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모둠활동에 적응해 갔다. 치고 받고 싸우기도 하고, 밥을 서로 나누어 먹기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자신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서로의 장, 단점을 이야기 해주고, 또 서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모둠활동을 통해서도 아이들은 리더가 된다는 것에도,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에도 자신을 얻게 되었다.

학습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요리에 자신이 생긴 아이, 나무와 들꽃을 잘 알게 된 아이, 바느질을 잘 하게 된 아이, 별을 잘 찾게 된 아이, 1년동안의 자연생태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은 저마다 자신있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겼다. 사실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1년동안 기록한 글과 그림을 정리하면서 교사들이 더 놀랐다. 아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도 많이 변했구나. 자연학교에서 느낀 변화들이 실제 글과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었구나. 여름의 기록물은 아이들이 학교에 많이 제출하면서 소실이 되기도 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의 글과 그림을 자료집으로 묶어 개인의 변화된 모습을 아이들에게 돌려주려 한다.

3. 개인

1년동안 함께 참여한 아이들은 유치부가 4명, 1학년이 4명, 2학년 2명, 3학년 6명, 4학년 2명, 5학년 4명, 6학년이 2명, 중학생이 1명 등 모두 25명이다. 사전, 사후활동을 했던 아이들 중에서 여름자연학교에 다녀온 아이는 20명, 겨울자연학교에 다녀온 아이는 15명이다.

여름, 겨울자연학교에서 보았던 아이들의 변화와 모습을 중심으로 적으려 한다.

1학년 여학생—1학년에는 여자가 혼자뿐이다— 나린이는 한글을 익히지는 못했지만 한글을 모른다는 걸로 활동에 소극적이지 않고, 아이들의 놀림에도 꺾이지 않으며 언젠가는 한글을 다 알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린이가 가지는 적극성과 주체성(그 작은 몸에서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무슨 일이든 스스로 꼭 해내려고 노력한다.)으로 여름에는 유치부모듬의 모듬장이 되었고, 동생들을 잘 이끌어주었다. 그 많은 물놀이를 하면서도 아이들은 자신의 옷을 잘 챙겼고, 명상과 세밀화그리기 등의 활동에도 잘 따라주었다. 유치반 모듬이 점심을 준비했는데 간단한 요리도 잘 하였다. 공부방활동에서도 요리수업이 있는데 나린이에게 요리수업은 항상 기다리는 수업이었다. 점심준비를 할 때의 나린이는 아이들이 다치지 않는지 조심을 하면서도, 요리가 잘 되어가는지 확인도 해야 된다는 등의 여러 가지를 말아야 된다고 충요리사가 된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욕심도 많다. 그래서 언니들과 함께 하려고 한다. 언니들이 하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가 보다. 겨울에 갔을 때 나린

이는 별사랑 모듬이었는데 별사랑모듬장이 힘들다고 할 정도로 나린이는 꼭 붙어다녔다. 그 작은 입으로 참새가 짹짹거리듯이 설새없이 이야기를 한다. 그 노력이 언니들에게 인정을 받았는지 언니들의 많은 활동에 나린이가 자주 등장했고, 나린이 스스로도 한층 커졌다.

여름학교에 오면서 공부방에 다니게 된 송이는, 과연 송이가 공부방을 좋아 할까라는 물음을 던지며—일단 캠프에 같이 가보자며—참가하게 되었다. 송이는 제일 가기 싫은 곳이 학교라며 어떤 조직이나 체계에 강한 거부감이 있었다. 개인적인 성향도 강한편이라 처음 며칠간은 모듬원과 지내는 것이 힘들었다. 많이 울고 많이 싸우면서 송이는 친구들과 지내는 법을 배우가기 시작했다. 그림그리기도 무지 싫어하는 송이가 명상을 하고 난 뒤나 풍물한 모습을 그린 그림은 정말 섬세하다. 겨울에는 자신의 단점이 많이 우는 거라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이 참고 노력했다. 다른 친구들이 모두 송이의 변한모습에 놀라워했다. 무엇보다 지금은 공부방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5학년인 의주도 집단생활을 참 힘들어했다. 특히 7살인 홍주가 같이 가서 동생을 챙기느라 바빴다. 동생의 일보다는 자신의 활동에 좀 더 집중하도록 권유를 했지만 여전히 명상, 세밀화등 차분하고 정적인 활동을 힘들어했다. 의주는 힘든 생활을 책임지에 집중하면서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고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 겨울에는 많은 고민을 한뒤에 참가를 결심했다. 특히나 의주가 맡은 모듬은 남학생들만 4명이었다. 교사도 다루기 힘든 아이들을 의주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의주의 차분함과 때로는 무심함이 모듬원들을 잘 이끌었다. 요리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여장금이 된 의주는 글쓰기나 체험활동에서도 여름과 다른 진지함을 보여주었다.

아이들의 변화를 다 적으려면 끝도 없을 것 같다. 1년동안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그저 있어도 몸과 마음이 많이 자라겠지만, 옆에서 좋은 양분을 줄 때에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푸르게 자람을 과연 우리가 하는 교육이라는 것이.... 라는 물음에 해답을 주었다.

4. 교사

1년동안의 자연생태학교는 아이들뿐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우선 아이들과 함께 계획을 짜고 자연활동을 하려면 교사들이 자연에 대한 관심과 애정,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염색활동을 배우고, 수목원에서 자연해설사 교육을 받고, 풍물을 배웠다. 강사들이 와서 교육을 하지만 교사가 기본적인 식견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배운 전문지식을 잘 소화하도록 곁에서 도울 수가 있기 때문이다.

교사 스스로가 자연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에 숙연해 진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편안함과 소중함을 먼저 느낀다. 우리들이 머물렀던 영덕이라는 집은 교사들이 더 좋아했는지도 모른다. 아이들보다 명상을 더 좋아하고 자연체험활동을 더 즐겼다.

자연속에서 아이들과 온몸으로 만나면서 어머니선생님이—학교다니기 전부터 우리공부방에 와서 지금은 5학년이 된 아이의 어머니인데 2002년부터 선생님이 모시게 되

었다.—자기가 40대의 체력으로 10일동안 날마다 물놀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아이들의 에너지를 받은 거라고 고백을 했다. 그리고 자원교사로 캠프에 참가한 어머니 한분은 여름캠프때 너무 힘들었다고 겨울에는 가지 않을 것처럼 하시다가 캠프날 짜가 나오고 떠날 준비로 공부방이 들썩거리자 어머니도 다시 한몫을 하셨다. 자연에 몸을 맡기고 마당에서, 동네에서 한없이 자유로운 아이들을 보면서 촌에 와서 살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신다. 요즘엔 동네에 한옥이 한 채 나왔는데 거기서 이사를 가고 싶다며 남편을 어떻게 설득할까 고민하고 계신다.

이처럼 자연생태학교는 계속되는 일상업무로 찌들어 있던 교사들의 몸과 마음을 바꾸어 놓았다.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여유롭게...

IV. 활동자료

▶ 날피 자연 생태학교 서약서

1. 우리는 서로 돕고 함께 하는 것을 배웁니다.
2. 우리는 스스로 만들고 준비합니다.
3. 우리는 자연을 배우고 자연과 친구가 됩니다.
4. 동네 어른을 만나면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5. 밥을 먹을 때는 조용히, 천천히, 고맙게 먹습니다.
6. 마음껏 뛰어 놓고 아프지 않게 생활합니다.
7. 우리는 이 약속을 꼭 지킵니다.

▶ 여름캠프 중간평가(캠프6일째)

1. 캠프에서 찾은 친구의 새로운 좋은 점은?

■ 옥수수

참나리(여의주) : 웃음이 줄었다(예전엔 실없이 잘 웃었는데...), 예전보다 말이 없다.

다알리아(김나경) : 더 깔끔해졌다(청소를 조금 자주 하는 것 같다)

봉선화(한혜리) : 안마를 잘한다(처음하는 안마인데도 시원하다), 글과 그림 실력이 늘었다.

청개구리(백자영) : 친해졌다(전엔 많이 친하지 않았는데...), 힘이 넘친다.

대나무(백주화) : 그림이 늘었다(더 잘 그리게 된 것 같다)

■ 땅비싸리

하현동(달맞이꽃) : 웃음이 커서 좋다, 바른생활, 항상 웃어서 좋다.

문경환(달개비) : 잠버릇을 고쳤다. 잘해준다.

문세환(호박꽃) : 말투가 재미있다. 청소를 잘 한다.

조성환(강아지풀) : 장난 친다. 많이 장난을 치지 않는다(심한 장난을 좀 줄였다)

김지호(잠자리) : 자존심이 세다. 곤충에 대해 많이 안다. 편하다.

■ 고소한 그림

서명구(사과나무) : 같이 치워 주어서 고맙다. 수영을 같이 했는데 즐거웠다. 수영을 가르쳐 주었다. 같이 놀아 주어서 좋다. 일찍 잘 일어난다.

문용환(개구리) : 밤에 화장실에 무서워서 못 갔는데 같이 가주었다. 손가락을 줬다. 밥이 많을 때 먹어줘서 고맙다. 일찍 일어난다.

도현진(대나무) : 친구의 물건을 찾아 주었다. 말벌한테 쏘였는데 안 울었다. 부모님이 보고 싶었는데 이제 안 운다. 잠을 잘 때 재미있다. 밥이 많을 때 먹어줘서 고맙다.

김송(블래홀) : 아침에 집에서 잘 안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잘 일어난다. 소용돌이

에 떠내려 갈 때 손을 잡아 줬다. 용환이랑 같이 가서 좋았다. 밥이 많을 때 먹어줘서 좋다.

2. 캠프에서 했던 프로그램들이 어땠나요?

	좋았던 이유	힘들었던 이유
물놀이	수영을 해서. 시원하다. 재미있다. 물고기를 잡았다. 물장구를 쳐서	아팠다. 물이 코에 들어간다. 물을 먹었다. 들을 밟고 다녀서. 물고기 잡는거. 수영을 배울 때 아팠다. 옷 갈아입을 때 불편하다.
들꽃공부	꽃을 많이 알았다. 더 알 수 있어서 좋았다. 꽃이름을 알 수 있다.	다리가 아팠다. 땀이 나고 힘들었다.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더웠다. 걸어서. 벌레한테 많이 물려서 무서웠다.
염색하기	나의 옷을 염색해서. 베개와 이불이 예쁜 색으로 염색되어. 옷에 물이 드니 기분이 좋았다. 어느 식물에 어느 색이 나오는지 알 수 있었다. 팩 같이 사용해서 좋았다. 예쁘게 된다.	흰색만 해서 힘들었다. 염색한 천을 짜기가 힘이 든다.
베개만들기	바느질하는 것이 좋았다. 베개를 베게 되어서 좋다. 바느질을 잘 할 수 있게 되어서. 실을 꾸맬 때.	다시 풀 때, 먼지가 올라온다. 바느질이 힘들고, 팔이 아프다. 찢리는 것. 왕겨를 넣을 때, 잘 때 소리가 나고 냄새도 났다.
내나무, 내꽃 그리기	그러서. 내 나무를 그려서 좋다. 자기꽃이 얼마나 변했는지 알 수 있다. 같이 있어 좋다. 나무의 느낌을 알아서. 좀 더 잘 그리게 되고 자세히 보게 되었다. 잘 그렸다고 칭찬받아서 좋았다.	매일 그려서. 그림을 잘 못 그려 힘들다. 계속 그려서 그리기 귀찮다. 그리기를 할 때. 다리 아프다.
명상하기	상상력이 풍부해져서. 맑아졌다. 힘이 솟는다. 마음이 편해진다. 눈을 감으니 좋다. 수행을 할 수 있었다.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아서	아빠 다리를 하고 눈을 계속 감아야 해서. 좀 지루하다. 가만히 있을 때. 딴 생각을 하게 된다. 답답하다. 따분하다. 힘들었다. 벽에 기대지 못해서.
엽서, 일기 쓰기	부모님한테 편지 보낸게 좋았다. 엄마생각이 났다. 학교 숙제도 된	마음이 아팠다. 글씨 쓸때 힘들었다. 자주 쓰니까

	다. 소식을 전해 줄 수 있어서. 글씨 쓸때. 아빠에게 편지 보내서 좋다.	
책읽기 (공부)	재미있으니까. 어떻게 좋고 나쁜지 알때. 재미있는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양식을 얻게 되어서. 머리가 맑아진 것 같다. 글을 많이 알게 되었다.	목이 아프다. 시간이 좀 적다. 따분하기도하다. 답답하다.
밥먹기/ 밥하기	한식이 많아서 좋다. 직접하니 신이난다. 밥하기가 재미있다. 맛이 있어 좋다.	설거지 할 때. 맛이 이상할 때도... 싫어하는 반찬도 나온다. 밥하기가 어렵다.
풍물	신나게 놀아서 좋다. 풍물을 배울 수 있어 좋다. 옛날놀이를 배워서. 신난다. 풍물선생이 될 수 있으니까.	팔이 아주~ 아프다. 칠 때 헛갈린다. 어렵다. 손이 아프다. 자세가 힘들다. 오래할때.
도자기	재미있게 할 수 있으니까. 만들때 잘 만들어 좋다. 내가 만들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거라서 좋다.	컵이 동그라서 그럴때 어려웠다. 어렵다.
숲체험 (등산)	물놀이를 할 수 있으니까. 공기가 좋다. 재미있다. 운동되어 좋다.	넘어지면 아프다. 걷기를 많이 해서. 벌레가 많다. 다리가 아프다. 물에 빠져 몸이 무거워 졌다. 다리를 건널 때 좀 무서웠다.
나무체험	나무가 깨끗한 공기를 주어서. 느낌이 나무에 따라 다르다. 친구가 될 수 있어서. 즐겁다. 나무가 많이 있어 좋다.	느낌을 알기가 힘들었다. 지루하다. 까칠까칠하다. 앞이 안 보인다. 다니는게 힘들다. 귀찮다. 그리기가 어려웠다.
떡만들기	떡메 치는게 재미있다. 직접 만들어 먹으니 더욱 맛이 있다. 맛있었다. 떡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서	더해보고 싶다. 떡을 치기. 떡을 치고 들 때 힘이든다. 떡메를 들 때.
그외 기억나는 거(곤충잡기, 놀이,잡자기등 ..)	나비를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공간이 좋아서. 잠자는게 좋다.	모기가 몰아서 싫다.

3. 앞으로 남은 캠프에서 꼭 했으면 하는 프로그램은?

떡만들기, 요리 많이하기, 물놀이, 장기자랑, 파티, 놀기, 도자기, 그림그리기(풍경화), 캠프파이어, 명상하기, 일기쓰기, 자유시간, 풍물, 숲체험활동

4. 이후의 캠프활동을 여러분이 진행하려고 해요. 어떻게 역할을 나눌까요?

①계획을 짜서 한다.(선생님은 활동에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한다.)

②관리 책임자를 둔다.

대현, 세환 : 청소 / 지호, 성환 : 책 / 경환, 현동 : 밥

③저녁회의의 진행자는 주화, 대현이 / 박수맨은 지호 / 도움이는 선생님

④모듬끼리 나누어서

⑤밥준비는 모듬에서 1명이나 2명씩 돌아가며 한다.

⑥내일은 아침 : 주화, 대현, 현동, 김송, 명구

점심 : 나경, 해리, 지호, 경환, 용환, 현진

저녁 : 자영, 의주, 성환, 세환, 김송, 명구

▶ 겨울캠프 중간평가

*유리바다

우리 모듬의 장점-활발하다. 친구들과 잘 어울려 다닌다.
단점-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듣는다. 잘 떠든다.

여의주-모듬을 잘 이끌어 간다. 요리를 잘 한다.

-너무 히히거린다. 잘 노는 것

조성환-활발하다.

-장난을 많이 친다.

문세환-착하다. 친절하다.

-욕을 쓴다.

김송-호기심이 많고 모를 땐 잘 물어 본다.

-조금 만 건드려도 운다. 까불거린다.

*별사랑

주화언니가 잘한 거 : 우리를 많이 챙겨준다.

못한 거 : 화를 많이 냈다. 고칠점 : 화를 적게 낸다.

혜리가 잘한 거 : 조장을 많이 도왔다.

못한 거 : 장난을 많이 쳤다. 고칠점 : 장난을 적게 한다.

용환이가 잘한 거 : 이제 깨끗이 씻는다.

못한 거 : 창현이랑 싸웠다. 고칠점 : 동생과 싸우지 않는다.

나린이가 잘한 거 : 빠지거나 우는거 잘 없었다.

못한 거 : 수다가 많았다. 고칠점 : 수다를 적게 한다.

*나이팅게일

나경이의 못한 점 1.장난이 심했다. 2.늦게 잔 점 *장난을 줄이고 일찍 자야겠다.

현동이의 못한 점 1.장난을 심하게 쳤다. 2.이상한 말을 했다.*장난을 줄이겠다.

잘한 점-일을 열심히 한다.

명구의 못한 점 1.시끄럽다. 2.엄마를 너무 좋아한다.(따라다닌다)

*시끄럽게 떠들지 않겠다.

잘한 점-요리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

달라진 점 : 밥을 많이 먹게 되었다.

요리를 잘하게 되었다.

긴 줄넘기를 잘하게 되었다.

홍주의 못한 점 1.말이 많다. 2.너무 나선다.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다.

잘한 점-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

◆ 활동일지 모음 ◆

◆ 겨울눈이란?

1. 가을에 잎이 지고나서 나뭇가지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2. 내년엔 다시 태어날 꽃과 잎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있을까요?
3.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어떻게 자기를 보호하고 있을까요?
4. 나의 겨울과 나무의 겨울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5. 겨울들꽃과 겨울나무를 관찰하고 느낀점은?
(여름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 참고

- ㉠ 비늘잎으로만 보호되는 눈(개나리)
- ㉡ 비늘과 털로 보호되는 눈(목련)
- ㉢ 비늘잎과 진액으로 보호되는 눈(철쭉)
- ㉣ 잎자루에 싸여 보호되는 눈(참나무)
- ㉤ 땅속에 묻혀 있는 눈(민들레)

나이팅게일 2004 1/8 목 하현동

1. 새눈이 생긴다.
2. 잎이 조금씩 나오고 눈이 없어진다.
3. 우리는 건강하고 나무는 죽었다.
4. 여름에는 파랗고 겨울에는 시든다.

한혜리

1. 눈꽃이 생기고, 나뭇잎을 다 떨어 뜨린다.
2. 새로운 꽃과 잎을 피우기 위한 꽃눈과 잎눈이 있다.
3. 비늘과 털, 액 등으로 보호한다.
4. 우리는 겨울에 따뜻한 옷을 입지만 나무나 풀은 옷을 얇 입고, 털이나 잎으로

겨울을 보낸다.

5.겨울 꽃들과 나무가 많았고, 힘들기도 했지만 꽃들과 나무를 보아서 좋았다.

2004.1/7 수요일 유리바다 이름:김송

1.겨울눈이 생긴다.

2.나무에 눈이 생겼어요.

3.액을 뱉어낸다.

4.나는 옷을 입었는데 나무는 옷을 훌라당 벗었다.

5.여름에는 옷을 입고 있다 겨울에는 벗고 있다. 풀은 여름에는 먹을 수 있고 겨울에는 못 먹는다.

서명구 1/8 목 나이팅게일

1.눈이 생긴다.

2.잎이 녹색이다.

3.잎이 다 시들어다.

4.여름에는 안 시들었고 겨울에는 시들었다.

박나린

1.나무의 눈

2.새로운 꽃눈과 잎눈이 있다.

3.털로 보호하고 액, 비늘로 보호한다.

4.우리는 옷을 입지만 나무는 꽃눈이나 잎눈으로 겨울을 난다.

5.힘들고 좀 재미있었다.

되는 것이 궁금하기 때문이었다.

4.하얀(현)동의 염색물이 마음에 든다. 왜냐하면 내가 한 치자는 색이 아주 조금 연한데 하얀동의 것은 아주 진하기 때문이다.

5.너무 재미있고, 애들이 바닥에 치자즙을 흘려 아까웠다. 그리고 홍주 옷이 이쁘데 배려서 아까웠다.

6.그때는 강에서 해서 정말 재미있었는데, 지금은 왔다갔다해서 재미는 있는데 조금 귀찮다.

2004 1/9 금 유리바다 조성환

- 1.한약방, 숲, 들판
- 2.치자는:주황, 썩은:보라색, 황백:노랑색
- 3.포물딱 거리는거
- 4.우리 모듬 친구들 전부다 마음에 들었다.
- 5.재미있고, 좋은 기분
- 6.네, 그때는 매염제로 소금으로 쓰고, 지금은 매염제로 백반을 썼다.

2004년 1월 9일 금요일. 문세환

- 1.한약방에서
- 2.여러가지 색이고, 주황색, 노랑색, 초록색
- 3.치자가 흥미있다.
- 4.고무장갑을 물에
- 5.재미습니다.
- 6.여름캠프 때는 염색을 했다. 물놀이도 하고 염색을 하고 고기도 잡았다. 물놀이도 하고 염색이불도 말리고, 염색하고 와서 놀고 했다.

모듬:별사랑 2004.1.8.목 이름:한혜리

- 1.황백, 썩, 치자를 직접 찾으러 가거나 한약방에 가서 산다.
- 2.진한 노랑색, 연한 노랑색, 짙은 보라색 등의 색이 나올 것 같았는데, 내 예상대로 되성서 기분이 좋았다.
- 3.세가지 천을 각각 염색물에 넣었을 때와 염색이 다되어서 볼 때가 제일 좋았다.
- 4.주화언니가 황백 염색을 할 때, 이쁜 색이 나와서 내 마음에 들었다.
- 5.염색이 전혀 힘들지 않았고, 재밌고, 신이 났다. 또 나중에는 더 이쁜색으로 물들이고 싶다!
- 6.여름캠프 때 한 염색이 더 재밌었다. 왜냐하면 그땐 물에 누워서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겨울 캠프 때 한 염색도 재밌긴 했다. 좀 재밌게 한 범인:보경쌤.

2004년 1월 6일 화요일 하현동

1.재료는 썩, 치자, 황백으로 하고 썩은 마당에서 구했고, 치자와 황백은 한약재료를 파는 곳에서 샀다.

2.치자와 황백은 선생님이 구해놓았고, 썩은 마당에서 뽑았다. 썩은 초록색이 나올 것 같았다.

3.염색물에 담귀서 매염재물에 담귀서 행궤을 때가 재미있었다.

4.처음에는 이상 할 것 같았는데 색깔이 잘 나왔다.

5.힘은 들었는데 재밌었다.

6.여름 캠프 때는 황토만 해서 이상했는데 여러 가지 재료를 구해서 하니까 색깔이 더 잘나왔다. 그리고 썩은 초록색이 나올 것 같았는데 별색이 안나오고 치자는 주황색이 나오고 황백도 주황색이 나올 것 같았는데 노란색이 나왔다.

1/9 2004 금요일 : 김송

1.한약방, 들관, 산

2.그 색이 예뻐서 연두색, 주황, 노랑

3.쫄물딱 거리는 거

4.세환이형, 나랑 똑같은 색

5.쫄물딱 거려서 재밌다.

6.그때는 1가지 색인데 이때는 3가지색이다.

별사랑 1.8 금 문용환

3.황백염색이 제일 마음에 든다. 연노랑색이다. 염색물에 넣고 쫄물력 할 때가 재미 있었다.

5.좋았고 다시 또 하고 싶다. 더 잘하고 싶다. 그리고 좀 쉬고 싶고, 놀고 싶다.

2004.1.8.목 (모듬 별사랑) 박나린

3.천에 색이 들 때. 썩색이 염색이 들지 않았다.

5.팔이 힘들지 않고, 젖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젖지 않아서 좋았다. 하나님께서 진한색과 연한색을 나오게해서 내 소원을 이루워 주셨다.

2004년 1월 6일 화요일 나이팅게일 서명구

1.썩:들에서 뜯어서 구했다. 치자,황백:한약 재료상에서 구했다.

2.색깔이 예뻐서

3.염색물을 들이는데 재미있었다.

4.현동이 형아야 색이 좋았다.

5.기분이 좋았다.

6.그때는 강물에서 했고 지금은 집 마당에서 했다.

2004년 1월 6일 火요일 여흥주

- 1.재료는 마당에 뒀습니다.
- 2.초록색이 나온다고 생각
- 3.흠치기
- 4.나경이 언니
- 5.좀 심심했다.
- 6.몰라요.

▣떡만들기

1. 내가 만들 수 있는 떡은?
2. 나는 떡 요리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떡을 만든다면?
3. 떡만들기를 가장 열심히 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이 친구에게 상을 준다면...
(상장을 만들어 주세요)

◆ 숲에 가기

1. 내 나무를 찾았나요? 어떻게 변했나요?
2. 내 나무가 나에게 무엇이라 하나요?
(나무와의 대화내용을 자세히 적어주세요)
3. 내 나무에게 시나 노래를 들려주세요.

◎김나경 - 숲에서 만난 내 나무 친구 꽃님이(산벚나무)

1. 찾았다. 주위에 아기들을 많이 낳았고 조금 통통해졌고, 껍질이 까칠까칠 해졌다.
2. 너무 오랜만이라서 반갑고 내가 지은 꽃님이라는 이름이 맘에 든다고 했다. 꽃님이 낳은 아기들이 씩씩하게 잘 컸으면 좋겠다고 했다.
3. 동시

내 나무 친구 꽃님이 - 김나경

처음엔 잘 있을까 잘 지낼까
걱정했는데 와서보니
여름때보다 훨씬 더
잘 지내는 우리 꽃님이...
내가 말을 걸었을 때
겨울잠을 잤다 깬는지
잠이 와도 꼭 참고 대답해준
우리 꽃님이가 고맙다
다음에 다시오면
더 튼튼하겠지
다음에 다시오면
더 이쁘겠지...

◎여의주 - 내 나무 이름은 겨울이

내가 친구가 되어 달라고 하니까 나무가 나한테 친구가 되어준다고 했다.
변한 것 :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겨울눈이 생겼다.
내 나무에게 '오나라' 노래를 불러줬다.

나무야 - 여의주

나무야 나무야
일어서서 자는 나무야
나무야 나무야
다리아프지
나무야 나무야
이제부터는
편하게 자라~

◎백주화 - 내 나무 이름은 '원디'이다.

1. 변한 것은 주변이 너무 쌀렁하고 추워보인다는 것입니다~
2. “츄니?” “응...” “벌레 때문에 아프니?” “조금...” “매끈하구나...년...” “응...” “말수가 적네...?” “응...” “노래 중에 ‘영원히 널 지킬텐데’ 이 가사가 좋아...”
3. 시

소슬바람 -백주화

불어라 불어라
소슬 바람아~
우리 나무 아프지 않게...
내게 말할 수 있게...
영원히 앓 아프게...
영원할 수 있게...

◎하현동

시

봄비 맞고 새순트고
여름비 맞고 몸집크고
가을비 맞고 생각에 잠긴다.
나무는 나처럼

시

아기염소 밥돌라고 음매 음매
아빠염소 수영 기른다고 음매음매

◎조성환-나무이름:초롱이 내이름:조성환

1. 초롱이와의 대화

나:한꽃아, 내가 노래나 시를 지어줄께. 잘 들어봐.-^.-

내 친구 한꽃아. 이쁜~ 한꽃아. 많이 이뻐졌구나. 날씬해졌구나. 그런데 그런데 감
긴 알걸렸니? 나는 괜~찮은데. 너는~ 괜찮니?

내 친구 한꽃 -한해리

내 친구 한꽃아.

몸은 괜찮니? 춥진 않니?

참으로 참으로 걱정이 되구나

내 친구 한꽃아

내가 좋으니? 내가 싫으니?

참으로 참으로 궁금하구나.

◎여홍주-내나무이름은 사과나무

나는 너 제일 사랑해

나두 너 누구보다 홍주를 사랑해.

나무에게 들려주는 내 노래.

나무야 나무야 제일 예쁜 나무야.

숲에 있는 나무야 너무너무 예쁘다.

사랑스러운 나무야 정말 좋은 나무야

너는 너는 짱이다.

사과나무야 누구보다

제일 예쁜 사과나무야

◎김송

○나무이름:오나디라고 지었다.

○나무는 내가 기억 나나보다 자기 껍질을 때어 인사한다.

○나무는 아직도 꺾이지 안은거 보니 영덕에는 아무일도 없었나보다

◆ 연 만들어 날리기

1. 연을 날려 본 적이 있나요? 기분이 어땠나요?
2. 연 만들기를 할 때 힘들었던 점은요?
3. 내 연에 새해소망을 적는다면?
4. 나에게도 꼬리가 있다면(날개가 있다면).....?
(그려주세요~ ^^*)
5. 멀리멀리 날아서 가고 싶은 곳이 있나요?
(왜 그곳에 가고 싶은가요?)

2004년 1월 7일 수요일 나이팅게일 김나경

1. 연을 날려본 적이 있다. 그때는 기분이 정말 신나고 즐거웠다.
2. 연살을 만들때 마디가 잘 안 깎여 힘들었다.
3. 가족이 화목하고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 4.
5. 유기견을 키우는 곳. 이유-동물들을 돌봐 주고 싶어서

유리바다 여의주

1. 좋았고 재미있었다. 날리니 기분도 좋고, 하늘로 날아가고 싶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계속 날리고 싶어진다.
2. 계속 풀이 묻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종이가 찢어져서 힘들었다. 그리고 손이 아파서 힘들었다.
3. 우리 가족 모두가 새해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적었다. 더 적고 싶었는데 2004년이 되었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적었다.
- 4.
5. 가고 싶은 곳은. 세계를 다 돌고 싶다. 이유는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하고 직접 체험해 보고 싶어서...

2004.1.9.금 별사랑 백주화

1. 날려 본 적이 없었다. 오늘 만들 때는 재미있었다.
2. 살을(대나무로 만든 활살과 중심살) 깎을 때가 제일 힘들었다.
3. 올해도 활기차고 좋은 일 많이 있기를...
- 4.
5. 구름 안 곳... 왜냐하면... 구름에 앉아있고 싶어서...

나이팅게일 2004.1.7. 하현동

1.연을 날려 본 적이 있다. 그때는 기분이 좋았다.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아주 쉬웠다.

2.대나무 살을 붙일때가 힘들었다.

3.뭘든지 잘하고 싶다.

4.

5.백두산 천지에 가고 싶다. 왜냐하면 백두산 천지에 있는 물이 얼마나 맑은지 알고 싶다.

유리바다 조성환

1.좋은 기분, 없다.

2.실로 묶을 때

3.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4.

5.천국, 가고 싶어서 그리고 맛있는 음식의 만이만이 먹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빛고 싶어서 그리고 천사처럼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유리바다 문세환

①좋아하고 재미있다.

②소원을 저어때 새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저어서요
우리가 힘드어서요

③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④

⑤개고에. 왜냐하면 게가 있고 그리고는 많이 잡으면 집에 가져가서 구어먹는다.

2004.1.7.금. 별사랑 한혜리

1.연을 만들어서 날린 것은 처음이지만, 직접 만들어 보니까 참 좋았다. 짱! 따봉!

2.연 만들려고 나무를 깎을 때에 계속 부러져서 참 힘들었다!

3.올해에는 우리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좋은 일만 많이 생기기를...

4.

5.멀리 멀리 날아가서 우리집으로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족에게 새해 복을 많이 받으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1/7 수요일 (여흥주) 나이팅게일

1.연을 날려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기분이 들었다.

2.살을 고정시키고 부치는게 힘들었다.

3. 새해가 더 재미어지게 해주세요.

4.

5. 기분이 좋을 거 같다.

1월 7일 수요일 나이팅게일 서명구

1. 기분이 좋았다.

2. 허리살을 하기가 힘들었다.

3. 우리가족이 건강하게 살면 좋겠다.

4.

5. 가고 싶은 곳 : 과자나라. 과자를 많이 먹고 싶다.

별사랑 일9 월1 2004 문용환

2. 살끼우기가 힘들었다.

3. 연을 잘 날게 해주세요.

4.

5. 놀이터에 가고 싶다. 왜냐하면 연을 날리고 싶어서

2004.1.9. 금 별사랑 박나린

2. 대나무 깎아서 연살을 만들 때가 힘들었다.

3. 연이 잘 날아가는 것이다.

4.

5. 멀리멀리 우리 집까지 날아가고 싶다. 왜냐하면 지금 엄마 아빠랑 캠프동안에 헤어져 있기 때문에.

◆ 우리는 들꽃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1.*우리가 먹어 봤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자성어 결초보은(반드시 은혜를 갚는다는 말)을 아시나요? *먹어본 사람을 알아요. 그 고소한 맛 기억하나요?

---그령

2.*손으로 뜯으면 잎이 간격이 있게 푹푹 뜯겨요. *손과 팔에 잘 붙습니다. *계급장풀이라고도 합니다.

---매듭풀

3.*외국풀입니다. 귀화식물이라고 하죠. *나라가 망했을 때 피어난 꽃이라 해서 이 이름이 붙었죠? *가운데가 노랗게 계란처럼 생겼습니다.

---개망초

4.*노랗게 꽃을 피웁니다. *먹으면 시어요. 근데도 자꾸 먹고 싶어요. *토끼풀과 잎이 비슷하다고 이풀이랑 착가하는 건 아니겠죠?

---괭이밥

5.*기절합니다. 마취가 되는 풀입니다. *물가에 많이 자랍니다. *동화썸 별명이죠.

---여뀌

6.*노랗고 커다란 꽃입니다. *암꽃과 수꽃을 눈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잎을 따서 쌈을 싸서 먹어본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을걸요.

---호박꽃

7.*우리나라에 고루 퍼져있는데 동물들은 먹지 않는답니다. *소여물로 쓰면 큰일이 나죠. 소가 먹으면 배가 부어올라요. *소 말고 다른동물과 관계있는 이름을 가졌어요.

---돼지풀

8.*육각형입니다. *도깨비풀과 비슷합니다.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가막살이

9.*보라색과 파란색꽃을 피워요. 파란색이 필요할 때는 이꽃을 찾아서 색을 내요. *다른 풀을 감고 올라갑니다. *이 동물의 머리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이렇게도 불러요.

---달개비(닭의 장풀)

10.*향기가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원래는 우리나라 꽃나무였지만 서양에 가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온 꽃나무가 되었습니다. *서양이름은 라일락, 리라꽃이라고 합니다.

---수수꽃다리

11.*물가에 주로 뿔니다. *노란꽃이 밤에 뜨는 달을 생각나게 합니다. *밤에만 꽃을 피웁니다. 달빛에 비친 이 꽃은 하얀색으로도 보여요. 신기할 때도 있어요.

---달맞이꽃

12.*동네 주변에만 자랍니다. *산에 길을 잃어 버렸을 때 이 풀을 찾으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즐기는 약재로도 쓸 수 있지만, 끈으로 쓰면 튼튼합니다.

---질경이

13.*노란꽃을 피웁니다. *일년내내 볼 수 있습니다. *쑥갓을 닮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겨울에도 볼 수 있습니다.

---개쑥갓

14.*꽃잎을 열면 속에 아기처럼 노란똥을 쌓어요. *보라색. 빨간색. 자주색. 주황색. 흰색등 많은 색의 꽃이 있어요. *손톱에 물을 들여요.

---봉선화(봉숭아꽃)

15.*민들레 같은 노란꽃이 피고 씨앗이 바람에 날아가요. *봄에 입맛이 없을 때 이 나물을 먹으면 입맛이 돌아온데요. *여름에 잎을 따서 하얀액을 혀에 한번 대어보세요. 으~~씨!!!

---쑤바귀

[보너스문제] *잎이 연한 봄에는 잎으로 나물을 해 먹어요. *백합과의 식물입니다. *참나리와 구분할 수 있나요? 꽃의 반점과 꽃잎이 뒤로 말리는 것을 보고 구분할 수 있답니다.

---원추리

♡ 이력저력 숲체험 활동 ㉔

☐ 내 나무예요 --->>안대(준비물)

- 두 사람이 짝이 되어 안대를 한 짝을 자신의 나무로 안내하여 짝이 자신의 나무를 찾을 수 있게 구체적인 힌트로 도와준다.(예)뺨을 대어보세요
- 처음의 자리로 돌아와 나무를 찾아간다.(자리로 돌아올 때 직선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 밧줄 따라 숲 속 여행 ----->>안대, 밧줄

☐ 애벌레 산책 ----->>안대

☐ 작은 세계 탐험 ---->>실

☐ 자연물 아닌 것 찾기 ---->>인공물(아무거나), 밧줄

☐ 소리듣기, 이어서 시 쓰기 ----->>필기구, 종이

☐ 나무만들기, 나무되어보기

☐ 코 만지기 ---->>교사자료(자연체험1 p157)

- 교사가 다섯 가지의 힌트를 주면서 동물을 알아맞히는 놀이이다. 답을 알면 코를 만져서 신호를 합니다. 힌트는 점점 쉽게...

☐ 내 짝은 어디에 ----->>동물이름표 한 쌍씩

- 특징 있는 울음소리나 움직임이 있는 동물을 골라 이름표 두 장에 적어 아이들에게 나누어 준다. 큰 원을 만들고 시작신호와 함께 동물을 흉내내어 자신의 짝을 찾는다.

☐ 나는 누구일까요? ---->>동물카드, 짐계

☐ 같은 것을 찾아라 ----->>찾은 것을 담을 주머니 혹은 손수건

- 장소를 이동할 때 하면 좋다. 먼저 주위에서 쉽게 혹은 어렵게 볼 수 있는 자연물을 모아놓고 10초동안 보여주고는 찾는다.

☐ 보물찾기 ----->>주머니, 보물목록(자연체험1 p89)

- 자연의 신비하고 아름다움에 빠져보자

☐ 나만의 장소를 찾아서 ----->>활동지(자연체험1 p125), 그림도구, 필기구

☐ 해질녘 관찰, 밤산책, 카멜레온놀이--->>활동지(자연체험1 p144). 필기구

☐ 카메라 놀이 ----->>종이, 그림도구

- 두명이 한 조가 되어서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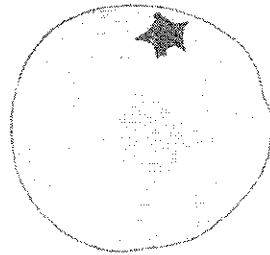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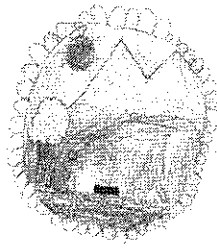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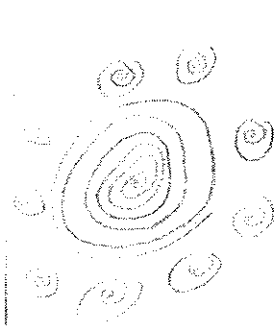
☐ 숲 속에 누워

☐ 야생동물은 내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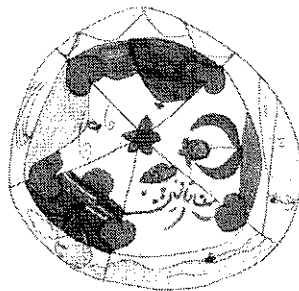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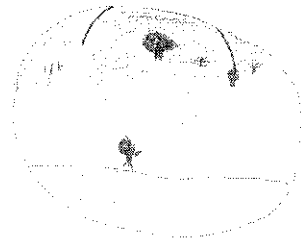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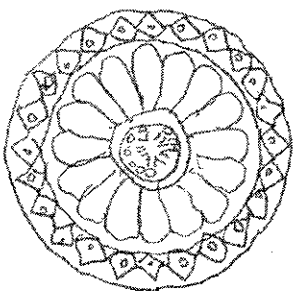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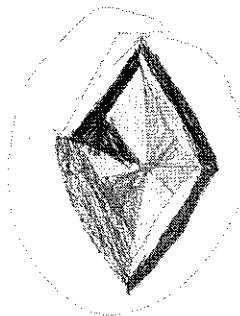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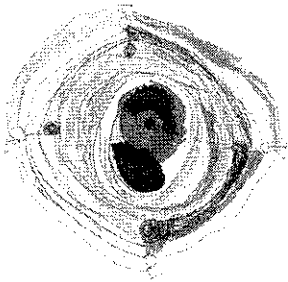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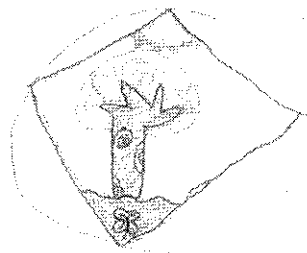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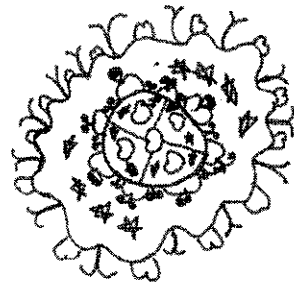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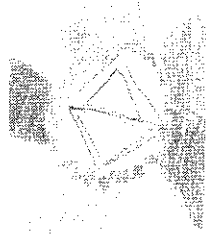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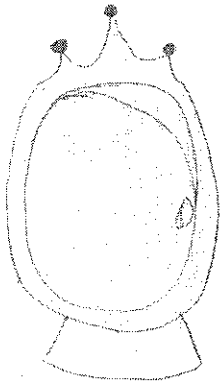
▶ 겨울방학 책읽기 활동

주제별	책 제목
별	숨은 별자리/별은 왜 반짝이는가
가정	가정에절배우기/씨실 날실/아씨방 일곱동무
친구	양파의 왕따이야기/드레스 백별/보르카
동물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1111벼룩과 고양이
나무	죽은 나무가 다시 살아났어요/숲을 그냥 내버려둬/나무/나무는 좋다
음식	떡잔치/쌀 한톨/김장하는날/김치는 싫어/할아버지는 요리사/ 밥 힘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
가족	우리 엄마 데려다줘/내동생 앤트/아빠는 지금 하인리히 거리에 산다/숨박꼭질
그림책	가브리엘 뱅상 동화집

▶ 만다라모음



2004년 1월 9일 금요일
제목 외톨이가 된 호라벌



▶ 자세히그리기 모음

